

제 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글짓기 부문

수상집



발 간 사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정신문화의 붕괴와 더불어 효의 기본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곡성문화원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 고유의 기본정신인 “효 사상”을 정립시키고 효를 통한 청소년 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위해 “제2회 효녀 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의 수상작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수상작들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이 삶의 귀감이 되어 효의 참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후대에도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제2회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을 전국각지에서 고루 응모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12월

곡성문화원장 양 병 하

차례

발간을 하면서

시

- 500원 동전속의 학 (죽곡초교 4학년 김보라) | 09
나뭇잎 하나 (죽곡초교 6학년 이세란) | 10
변신 천재 나무 (여수문수초교 2학년 김푸른) | 11
년 알고 있니? (고흥 과역동초교 6학년 송종면) | 12
쭈욱 뻗은 그림자 (장흥초교 4학년 정우정) | 13
코스모스 (담양 고서초교 1학년 김선진) | 14
우리 할머니 (장흥초교 3학년 하유진) | 15
겨울나무는 안테나 (고흥 송산초교 5학년 김연주) | 16
그림자 (장흥초교 2학년 서리라) | 17
단짝친구 (장흥초교 6학년 정여민) | 18
어머니 (곡성고교 2학년 이세영) | 19
벽 (김해 중앙여고교 2학년 문혜원) | 20
한 여인의 노래 (춘천여고교 2학년 윤지은) | 21
신명 (곡성고교 2학년 김혜정) | 23

산문

- 홍도 (신안 흑산초교 신흥분교 6학년 김명옥) | 25
외가에서 가을 느끼기 (곡성 서초교 5학년 김영미) | 28
가을과 함께 영근 씨앗 (고흥 송산초교 5학년 안수정) | 30
하늘이 내려준 선물 (김해 중앙여고교 2학년 김향남) | 32
느티나무가 있는 길 (김해 중앙여고교 3학년 이수진) | 34
신선의 그림자를 밟으며 (서울 풍문여고교 3학년 강지수) | 38
술잔의 의미 (영광고교 2학년 김가나) | 43
라디오 (김해 중앙여고교 2학년 노현주) | 48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 (천안 광풍중교 3학년 박소희) | 51

백두산의 기상 (광주 문흥중교 3학년 이신무) | 55
나의 도시락 (여수 부영여고교 2학년 김세희) | 65

소설

신데렐라 (서울 광양고교 2학년 김영정) | 69
아버지 (영광고교 2학년 고옥란) | 75
물망초 (부산 가야고교 3학년 김성미) | 91

수상현황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135



시 | 산문



500원 동전속의 학

죽곡초교 4학년

김보라

500원 동전속의 은빛 학

외로워

홀로 남겨지고

동전 감옥속에

갇혀서

자유롭게

저하늘을 날고 싶어도

그것은

작은 소망일뿐

학아 학아

더욱더 축복받아

저하늘을

듬뿍 가져보렴



나뭇잎 하나

죽곡초교 6학년
이 세 란

모두 떠나버린
빈 가지에
혼자 남아 떨고 있다.

나뭇잎 하나,
긴~ 여름...
가지가 무겁도록 나풀거리더니
쌀쌀하고 무거운 바람에...

하나, 둘...
갈 길 찾아가고

눈보라 속에 팔랑대는 나뭇잎 하나...
이 나뭇잎은 이제 어디로 갈까?



변신 천재 나무

여수 문수초교 2학년 3반
김 푸 른

나무는
변신 천재

여름에는,
초록색 나뭇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리고 봄에는
연두색 나뭇잎이
파릇파릇 돌아나고,

가을에는
빨간색 노란색
아주 예쁜 색 옷을 입지

그리고 겨울에는
무슨 모습으로 변신 할까?

옷도 안 입고,
눈 맞아 가며 눈옷을 입지.

나무는 요술쟁이고,
변신천재



넌 알고 있니?

고흥 과역동초교 6학년 1반
송 종 면

파란 가을 하늘이
널 부르는 것을
넌 알고 있니?

코스모스가 손 흔들며,
널 반겨주는 것을
넌 알고 있니?

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널 위해 연주하고 있는 것을
넌 알고 있니?

알고 있을거야
너는 알고 있을꺼야
가을을 알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냄새를...



쭈욱 뺨은 그림자

전남 장흥초교 4학년 2반

정우정

졸졸 따라다니네
내가 그렇게도 좋니

심부름 가는길 심심해서
말동무나 되려 했더니

그림자는 묵묵히 말이 없네

옷도 검정밖에 못입고
친구도 나밖에 없네

팔 내밀어 안아줄까
뒤뚱뒤뚱 닭싸움 놀이해줄까

이제부터 말동무 되어줄게.
쭈욱 몸만 길어진 그림자



코스모스

담양 고서초교 1학년 1반
김선진

무얼 먹어 저리도
키가 컸을까?
하늘 먹고 컸겠지.
바람 먹고 컸겠지.

무얼 발라 얼굴은
저리 예쁠까?
햇빛 발라 예쁘겠지.
달빛 발라 예쁘겠지.

나보다 예쁠라...
나보다 키클라...



우리할머니

장흥초교 3학년 3반
하유진

우리할머니 손은 요술손.
바늘과 실만 잡으면,
못 만드는 것 없어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실과 바늘 돌리면서,
잘도 만들지요.
스웨터도 똑딱
조끼도 똑딱

할머니의 마음은 천사.
아무리 손이 아파도
“이것은 큰 손녀 것”
“이것은 작은 손녀 것”
“이것은 외로운 이웃 할머니 것”

.....

하루도 실틈이 없어요

할머니 마음은 천사마음
우리 할머니 가까이 사신다면
날마다
허리, 어깨
주물러 드릴텐데.....



겨울나무는 안테나

고흥 송산초교 5학년 1반
김연주

겨울나무는 안테나
바다를
건너오는
봄소식을 듣는다.

겨울 나무는 안테나
산을
넘어오는
봄소식을 듣는다.

나는 안테나
나무를
통해
봄소식을 듣는다.



그림자

장흥초교 2학년 6반
서리라

그림자는 이상하다
아침엔 키다리
낮엔 난쟁이

하루종일 졸졸
나를 따라 다니다
밤이 되면
어디로 숨어 버리죠

공작새
우리 학교 공작새
너무 예뻐요

빙글빙글 돌다가
꼬리치면

하늘의 무지개가
생기지요



단짝친구

장흥초교 6학년 1반
정 여 민

봄에는 나뭇가지
파릇파릇 새싹돋고

여름에는 나뭇가지
꽃봉우리 맺고

가을에는 나뭇가지
색색옷 갈아 입고

겨울에는 나뭇가지
옷을 다 벗는다.

계절은 계절은
나무의 단짝친구



어머니

곡성고교 2학년 3반
이세영

바람이
녹슨 장대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날,
파란 노끈으로 뽕뽕 묶인
몸뺑바지엔

꼭

내일 다시 입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밤새 시퍼런 칼바람에
시달리던 바지는
이른 아침 서릿발에
뿔뿔하게 굳어 버렸다.

채 녹지 않은 바지를
꺾어입으시는 어머니는
총총히 하우스 속으로
사라지셨다.

미처 못따라간 새벽 안개만
하우스 밖에서 눈물되어 흐르고
긴 어둠가에서
아침이 서성거린다.



벽

김해 중앙여고교 2학년 3반
문혜원

오랜 시간 걷다가
뒤돌아 보면 당신입니다
걸음을 걷다 지쳐서 올려다 본 하늘
그것도 당신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당신만 보이는게 서글픕니다
언젠가 걷다가 잘못 벗어나면
당신은 저만치 가있습니다
잠시 빠진 함정도
즐거운 거란 걸 알고 난 뒤
난 다시 당신을 찾습니다
수많은 벽으로 쌓인 교실들
그래도 난 여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한여인의 노래

춘천여고교 2학년 1반
윤 지 은

동구 밖의 낮은 토담집 마당엔
폭폭
아직 물이 덜 든 면포가
땀을 내고 있다.
치자와 쪽빛물이
여인의 앞치마를 타고 돈다

서방님을 기다리던 붉은 연지는
번져
잇꽃으로 우러나오고,
시부모님 봉양하던 흙문은 호미는
부러져
정향나무 내음을 풍겼다.
여인의 무명천은
급기로 소문이 났다.

찌고 말리기를
아흐레

울고 흐느끼기를
아흐레

천연의 빛깔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인의 삶’이라는 염료가
그 속에
녹아 있었다.

신명

곡성고교 2학년 3반
김혜정

태평소가 길게 울고
신명이 온 동네를 흥건히 적시면
아이는
주술에 걸린 인형처럼
사립문을 뛰어 넘고
논둑 밭둑을 내달렸다
숨통을 죄오는 더위여도 좋았다
곰팡이 냄새 나는 비가 와도 좋았다

어깨춤을 덩실대는
할머니가 있고
언제나 발 밑을 비추는
해와 달이 있고
멀리서라도 아이를 부르는
팽과리 소리만 있다면
얼쭈 절쭈 좋구나.

누더기 얼룩진
가난의 옷을 입은 아이는
제 아버가 그랬던 것처럼
땅에 뿌리 박고
흥겨운 소리 따라

양분을 빨아 올려
배고픈 설움을 달랬다

이제는
땅두 땅두 내 것이다
조선 땅두 내 것이다
좌도 농악 높은 소리에 취해
하늘에 젖고 땅에 젖고
곡주 한 잔에 젖어 있는
젊은이여.

그는 제법 멋들어진 춤사위를
출 줄 아는
때짚레꽃 닮은 붉은 웃음을
피울 줄 아는
술잔 속의 할아버지를
닮아 있는
신명의 자손이다



홍도

신안 흑산초교 신흥분교 제6학년 1반
김 명 옥

내가 사는 곳은 남쪽 바다 끝에 자리잡은 조그만한 섬 바로 홍도다. 홍도 이름의 뜻은 바위가 붉어서 그렇다고 한다. 홍도는 공기가 깨끗하고 바닷물이 맑아 관광객 들이 많이 온다.

홍도의 자랑거리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홍어, 해삼, 돌김, 돌미역 등도 바다에서 생산한다. 관광객들은 홍도 회맛이 다른데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다시 찾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또 갯바위 낚시는 관광객 아저씨들이 가장 즐기는 것이다. 우럭, 돌돔, 감성돔 등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서 일 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배를 타시며 쉬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쉬게 하고 싶어 집 안 일은 제가 합니다.

저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빠 손을 고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모할머니를 따라 김을 팔아서 용돈으로 쓰기도 합니다.

홍도에 오면 이것을 안하고 가면 후회 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유람선으로 구경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고, 유람선에 횃배가 대면 맛있는 회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회 맛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도에는 홍어도 유명하지만, 홍어를 잡는 것은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홍어는 낙시란 것을 주낙에 일일이 끼워 잡습니다. 홍어를 많이 잡으면 어부들은 좋아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홍어 배가 고기를 잡아오면 도와주려고 선착장에 모두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도와주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홍도에는 해녀도 있습니다. 해녀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잡아 오십니다. 해녀들은 아무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때에 맞추어 간답니다. 해녀 엄마들이 힘들게 잡아온 해산물은 관광객들에게 팝니다. 관광객들은 더 싸게 주라고 합니다. 나는 해녀들이 깊은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 값을 깎아 주라는 것이 이상할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도 합니다.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해주는 집! 등대!

등대는 바다에 안개가 끼면 두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사이렌 소리' 로 알려주고, 두 번째는 '불빛으로 뱃길을 안내' 해 줍니다. 등대는 산책길로도 좋습니다. 관광객이 새벽 아침 산책도 많이 갑니다. 요즘 등대 밑에 있는 바다에 부두의 연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낚시터도 되고 풍랑으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홍도는 돌 갯도 유명합니다. 돌 갯은 무 방부제로 길러서 김치를 담궈 먹는데 참 맛있어요. 관광객이 돌 갯 김치 맛을 보고 팔라는 소리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홍도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아이엠에프가 다가 왔다 갔기 때문이라, 생각도 해 봤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가 봐요. 홍도 1구는 정 반대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요

나는 쾌속선이 홍도 1구에서 승선하고 하선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1구는 2구보다 편리하니까요. 홍도 1구에는 보건소, 농협, 우체국 등이 있어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홍도는 다른 바닷물보다 더 맑다. 고기가 헤엄치고 해초가 팔랑거리는 것이 다 보입니다. 여름이면 바위에 미역이 자라고, 겨울이면 김이 자란다.

해초가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절로 제 시기에 자란 것이 참

신기하다. 조개에는 거북손과 굴이 붙는다. 또 가을과 겨울 사이에 산에는 잣밤 이라는 작은 밤이 떨어져 주어서 먹는다. 그리고 산에는 산 더덕도 캔다. 우리 홍도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답고 인심이 좋고 사람들도 친절한데 보건소 같은 기관이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아 오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홍도를 더 더욱 사랑합니다.



외가에서 가을 느끼기

곡성서초교 5학년 1반

김영미

작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가을맛이를 하기 위해서 죽곡에 있는 외갓댁에 다녀왔다.

"어서 오너라. 아휴 자주 좀 오지. 명절에만 보면 이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보고 싶어서 자꾸만 눈이 아른아른 하는데..."

외할머니는 왜 자주 오지 않느냐고, 나를 나무라셨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안다. 할머니 말씀대로 외갓댁에 자주 들러서 할머니의 안부도 여쭙보고, 동생들 과도 재미있게 놀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할머니께서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총 동원하셔서, 우리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제 뒷산에 가서, 감을 따자꾸나. 얼마나 감이 잘 익었는지 모른다."

외갓댁의 동생들과,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맛있고, 탐스러운 감을 따기 위해서 뒷산으로 올랐다. 산골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더욱 맑았다. 이 곳에는 감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다.

"한 그루, 두 그루... 우와 감나무가 아주 많다!"

감이 탐스럽게 열려서 나의 입은 군침이 고여 있었다.

"자 이제 감을 따 볼까?"

외삼촌께서는 나무 위로 올라 가셔서, 하나, 둘씩 감을 따다. 몇 몇 감은 떫은 맛도 있었지만,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홍시의 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삼촌께서는 감 따기의 도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을 잘 따냈다.

가을이 비춰주는 햇볕에 감이 더욱 더 맛있고, 탐스럽게 자라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삼촌께서 감을 따시는 동안 동생들과 나는 삼촌께서 주시는 감을 받았다. 하나 둘 받으니까,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이렇게 맛있는 감을 약 한 시간 가량 따다. 우리가 가져 온 큰 바구니에 가득 쌓였다.

“삼촌, 이제 그만 따고 집으로 가요. 감 맛이 어떤가 한번 맛 좀 보고 싶어요. 빨리 가요. 군침 도니까요.”

삼촌과 그리고 외숙모, 동생들과 외갓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은 감파티를 열었다. 내가 맨 처음에 손에 든 감은 바로 흥시였다. 빨갛고, 탐스럽게 생긴 게 꼭 아기의 볼 같았다. 반으로 쪼개어서, 먹은 이 감은 아주 맛이 있었다. 시골에서 먹는 감을 누가 맛이 없다고 할까?

저녁때가 되어서 우리 가족은 외식을 하러 갔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은 통닭을 먹고, 어른들은 회를 드셨다. 밖에는 가로등이 밝은 달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외갓댁에서 느낀 가을은 너무도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시골 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가을과 함께 영근 씨앗

고흥 송산초교 5학년 1반

안수정

“자, 나가자.”

힘찬 선생님의 말씀에도 친구들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선생님은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잡초 속에 쓰레기가 뒹굴던 화단에 우리들을 데리고 목화씨앗, 해바라기 모종을 심으셨다.

“가서 호미 들고 오너라.”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숨을 생각도 하고, 도망칠 생각도 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 알아차리시고 호되게 꾸짖으시며 일을 시키신다. 호랑이 선생님도 얼마나 식물을 좋아하시는지 꽃들이 선생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였다.

여름 땀별에서도 계속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는 우리 선생님. 여름이 되자, 우리가 심은 해바라기는 벌써 꽃을 피웠고, 목화는 한참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은 국화 모종을 옮기면서도 계속 도망칠 생각만 하였다.

드디어 바람이 서늘해졌다. 그 동안 선생님한테 배운 목화의 유래, 물주는 방법 등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식물과 친해지고 있었다. 목화에는 노란색, 자주색 예쁜 꽃들이 피었고, 꽃들이 다 지고 나니 동그란 다래가 맺혔다.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간식이 없어서 이웃집 다래를 함께 몰래 훔쳐먹기도 했단다.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하실 때, 선생님은 아버지처럼 자상하시다. 한번 어떤 맛이었는가 궁금해 졌다. 그래서 한번 깨물었는데, 너무 시큼했다. 맛없는 다래를 훔쳐먹다니?

곧 다래가 떨어지더니 커다란 솜뭉치가 나오는 것이었다. 폭신폭신했던 솜이 따뜻하였다. 이 솜이 옷이 되고 이불솜이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준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런 솜을 우리가 수확한 것이었다.

드디어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곧 솜뭉치에서 씨를 골랐다. 까만 목화씨 속에는 우리들 꿈이 담긴 채 내년을 기다릴 것이다.

학교 울타리 사방에는 오이같은 길쭉하고 탐스러운, 수세미, 둥그런 주황색 여자, 귀여운, 조롱박..... 우리 반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도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난꾸러기 우리들과 우리반 선생님의 노력이 쓰레기 더미였던 한 화단에서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조용하기만 한 텅 빈 운동장이 갑자기 짙은 느낌이 든다. 풍성한 가을은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씨앗 속에 박혀 내년에도 싹이 터서 또 자라겠지.



하늘이 내려준 선물

김해 중앙여고교 2학년 3반
김향남

항상 곁에 있지만 나는 피해야 했다. 아직 인정할 수 없기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2년전 우리는 시내로 이사를 왔다.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언니랑 함께 살기에는 좋은 집이었다. 큰방은 언니랑 내가 쓰고 작은 방은 엄마가 쓰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꿈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갔다. 그러던 어느날... 검은 가죽잠바를 입고 큰 옷상자를 든 어떤 남자가 우리집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그것이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의 애인이었다. 나는 황당스러움과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6학년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 언니와 나는 엄마를 따라 나왔고 그 당시 엄마에게는 아저씨가 계셨다. 하지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새집에서 새로운 사람과 부딪치면서 살아갔다. 여자들끼리 살다가 남자 한명이 들어오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화장실도 옷차림도 밥먹을 때도 모든 것이 신경쓰이고 기분이 나빴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 역시도 좋았다. 난 예전에 항상 엄마랑 같이 잤는데 이제 엄마는 아저씨랑 같이 주무신다. 맨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다. 엄마를 꼭 빼앗긴거 같았다. 그렇게 아저씨랑 지난 시간 3년이 지났다. 술먹고 돈벌어 오라는 예전의 아버지랑은 다른 매우 자상한 분이신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는 얼마전에 아저씨랑 결혼을 하셨다. 난 엄마의 결혼식 날 가지 않았다. 엄마의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서... 구석진 방에서 혼자 하루종일 울었다. 엄마는

여행도 가지지 않은채 내가 걱정이 되셨는지 집으로 오셨다.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서 보니 엄마였다. 눈이 퉁퉁 부어서 엄마의 모습조차 흐릿하게 보였다. 엄마는 나를 보고 웃으셨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왜 바보같이 우니” 엄마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항상 니 곁에 있을 텐데.”

나는 한참을 안겨 울었다.

그리고 얼마후 아저씨를 찾는 전화가 왔다.

“거기 문사장님 맞습니까?”

“예, 맞는데 지금 안계시는데요.”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난 망설이다가

“딸인데요.”

“예, 그럼 제가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딸... 아마도 시간의 약속이 아닐까 싶다. 시간이 지나고 같이 부둥켜 산 시간이 내 마음의 족쇄를 열어서 새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요즘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새아버지 모습을 보고 아빠라고 마음은 외치지만 그 말이 쉽사리 나오지는 않는다. 3살짜리 꼬마가 말은 못하고 입에서 맴도는 것 처럼... 이제 내 자신을 다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아버지를 인정하듯 아빠소리도 세월에 맡겨보려 한다.

언젠가는 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새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느티나무가 있는 길

김해 중앙여고교 3학년
이수진

티끌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덜커덩 소리와 함께 자꾸만 흔들린다. 툭툭거리는 오래된 버스가 진한 흙 냄새를 풍기며 좁은 길을 신나게 달린다. 흐드러지게 휘어지는 나뭇가지가 차창 밖에서 파란 하늘과 함께 어울러지는 이곳은 아버지의 어린기억이 있다는 아버지의 고향이다. 아버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이때부터였고 그 눈에는 애잔한 서글픔이 서려 있었다. 오랜 침묵 속에서 버스 밖의 풍경은 이미 낯익은 모습이 되었고 본능적으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 나도 일어섰다.

우리를 내려놓은 낡은 버스는 한결 가벼운 모습으로 흙먼지 가득 내뿜고 사라졌다. 애뜻한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신 후에야 비로소 조용한 미소를 띄우신다.

“여기다.”

낮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한 슬픔이 묻어 있었고 발걸음을 움직이신 아버지께서는 또 다시 입을 굳게 다무셨다. 한적한 시골길, 산과 논 밖에 보이지 않는 길. 이런 곳에서 아버지는 무슨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변했을까.”

휘어진 길 끝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서는 또 다시 속삭이신다. 지친 아버지의 모습, 오늘은 왜 이다지 작아 보인단 말인가. 작아 보이는 아버지의 어깨가 나의 눈을 힘껏 잡았다. 단조로운 흙 길, 지루한 풍경. 10분을 채 걷지 않았는데도 난 이미 지쳐 있었지만 아버

지는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땀 때마다 더 깊숙이 아련한 추억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아!”

작은 철문을 밀며 아버지께서는 탄성을 지르셨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작은 건물과 그네, 철봉, 하얀 운동장, 까르르 소리를 지르며 굴러다니는 낙엽들. 30년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며 반가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환희에 차오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내가 다녔던 학교들의 모습과 이 초라한 모습들이 비교가 되었다. 크고 잘 정리된 건물과 교정, 늘 환한 웃음소리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께서는 운동장 한 구석으로 향하셨다. 하늘을 찌를 한 큰 나무도 아니었다. 멋진 나뭇가지가 펼쳐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기품이 묻어 있는 나무, 긴 세월의 연륜이 있을 것 같은 나무였다.

이 작고 낡은 학교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아마도 그 시작과 운명을 모두 함께 했을 법한 나무였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무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다.

“아... 아버지...”

완고하시고 늘 엄격하셨던 아버지께서 그 나무를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다는 아버지. 지난 세월동안 사는 것이 바빠서, 옛 기억과 마주치기 두려워서 오지 못했다는 아버지. 한참을 나무를 안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마침내 나를 향해 오셨다. 곁으로 오신 아버지에게서는 진한 나무냄새가 났다.

“여기는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야. 이 외진 동네에서 유일한 교육 공간이었지. 참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무 타기를 너무 무서워했단다. 하지만 운동회날 보물찾기는 늘

저 느티나무 나뭇가지에 숨겨져 있었지. 그때마다 너희 할아버지는 말없이 날 어깨위에 올려 주셨어. 커다란 어깨에 무등을 타고 난 언제나 당당히 그 보물을 손에 쥐 수 있었단다.”

순수한 추억이 한껏 묻어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올려다본 느티나무에는 어린 시절 작은 모습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모습이 흐린 영상처럼 비쳤다.

“내가 4학년을 채 못 마친 그해 가을이었어. 그래 꼭 이맘때였다.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더 큰 도시로 나가야 했지. 가지고 있던 논밭을 모두 팔아 아버지의 병원비로 돌렸지만 결국 여길 떠난 지 1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어디에서든지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되는 느티나무를 닦으라 하셨어. 그 모습을 잃지 말라고.”

아버지께서는 내 손을 꼬옥 잡으시며 일어나셨다.

“느티나무는 유난히 그들이 넓단다 그래서 옛날에 정자 옆에는 항상 느티나무를 심었지. 할아버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셨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가족들에게 그들이 되긴 커녕 늘 권위적인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했지. 돈만 벌어드 주는 것이 내가 할일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그 동안 나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5일마다 열리는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파시는 아버지, 난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길가에서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내 손을 잡은 아버지의 두터운 손에 깊은 상처가 내 맘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금물에 그 손을 담근 횡수만큼 부어오르고 틀어진 아버지의 손, 나는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깊은 고랑으로 남아 있는 주름. 어느새 아버지는 이 작은 초등학교처럼 초라해져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지. 매서운 추위속에서도 그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아버지가 버티며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 때문이란거.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거친 상자 가시에 찢려도 묵묵히 그 아픔을 참아 내신 것은 바로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란거. 이제 저도 느끼는 걸요.”

그 동안 참으로 말하고 싶었다.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늦은밤 안방을 비집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신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리하지 못했다. 어색함에 제대로 하지 못한 표현들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어 봤다. 나의 길고 험한 인생 길에 늘 있어 주실 아버지. 힘겹고 지친 나의 머리 위에서 강렬히 비추는 저 태양을 가리워줄 아버지. 그 분은 이미 느티나무를 닮아 있었다.

“난 아버지를 추억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들어진 삶이 모두 무책임한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그리워서 기억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

느티나무 앞에서 멈춰선 아버지는 다시 가만히 나무 위에 손을 데어 보셨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했다. 땅속 깊숙이 뻗은 느티나무가 힘차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 힘은 마치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 같았다. 붉어진 낙엽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나도 이처럼 넓은 그늘을 드리우리라. 이제 나의 아버지의 머리 위에, 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서 내가 큰 그늘이 되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풍경은 좁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기었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나를 반기는 아버지와 맑은 하늘, 그리고 흐드러지게 훑날리는 느티나무의 낙엽이 내 길에 찬란히 뿌려지고 있었다.



신선(神仙)의 그림자를 밟으며

서울 풍문여고교 3학년

강 지 수

동강에서의 래프팅은 정말 기대 이상의 경험이었다.

아름다운 주변의 경치도 좋았지만 그곳이 수몰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구비구비 억겁의 세월을 조각하며 견뎌온 강 주위의 경치는 어디 꽃이라야만 자리 값을 한달 수야 있을까마는 이름 모를 무수한 꽃은 꽃대로, 골골마다 나무는 나무대로 이런 저런 풀들 보듬고 그 틈새마다 제각각 몸집 맞게 햇살이며 바람, 삶과 행복을 나누어 주며 동강은 그 깊은 오지랴 언저리에 또 풀잎 그늘만큼의 별레며 짐승들을 길러 왔을 것이니 그 목숨의 자리를 이제 흔적조차 지운다는 데는 비감(悲感)을 떨칠 수 없는 일이다. 슬프도록 이름도 고운 어라연이 한낱 전설 한 토막으로 수장되는 현실을 손끝맺고 바라만 봐야 할 것인지... 마음 가벼운 인간들의 싸구려 감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그는 발이면 발, 타고 내리는 보트면 보트, 어느 것 하나 거스름 없이 어머니의 손길로 반겨주는 그리하여 오히려 무심한 그 깊은 속내를 감싸는 것인지! 자비와 은혜는 그만 두고라도 삼신 할아버지의, 하나님, 부처님의 무극(無極)의 경지를 여기에서 밟는 듯하여 가슴에는 잠시나마 뜻 모를 감격이 스민다. 하기사 인간의 미력으로 막으면 무엇을 어느 세월까지 막을 것이며, 가두면 무엇을 어느 골까지 가둘 수 있을 것인가.

고작 기백년 아이들 장난 같은 물놀이 끝나면 다시금 그 절벽 요요한 자리에 홀로 피어 있는 나리꽃, 그리고 바위처럼 고고히 툼툼히 버티고 서 있는 작은 소나무, 투박하나마 아름다운 전설을 등에 업고 다시 무량수의 흐름 침묵할 두껍 바위, 아니 이름을 달지 못했으

면 어떠랴. 이 골짜기 흐름 침묵할 두껍 바위, 아니 이름을 달지 못했으면 어떠랴. 이 골짜기 저 강가의 무심한 자갈 하나까지 결코 적지 않은 세월들 무심히 삭이고 그 자리에 청청하게 서 있는 그 영혼들은 잠시 잊었던 물길 따라 빛나는 물결 어루만지며 햇살 암낭하여 다시금 세월을 저어 가겠지. 다만 속인의 성급한 분노와 절망과 값싼 한숨으로는 저 강물위에 노니는 원앙 한 쌍이 오래오래 동강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가 염려될 뿐이다. 세 시간의 자애로운 꿈을 벗어나는 끝날 임시에 굵은 비가 내린다. 역겹의 세월에 실린 이야기들 가슴 풀어 다 나누지 못하고 작별하려는 무거운 마음을 가만히 헤아리는 듯하다.

잠시의 빗줄기에 들끓던 흰화(喧譁)가 다 가라앉고 그 수악한 더위까지도 다 어디로 가버린다. 바람바람 구비를 돌아 내려 다시금 진속에 발을 내디디는데 그 강물에 마음 때, 몸의 때 죄다 털고 그러고도 무엇을 얼마나 떨어내야 한다는 것인지 한참을 두고 비가 내린다.

두타산 등반은 첫들머리부터 고행 그 자체였다. 숨을 뽑아만 가는 경사에 바닥까지 드러난 호흡도 위태로운데 그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 급급한 박동에 맞춰 몰아대는 건너산 관음암의 무심하면서도 빠른 목탁소리, 다리는 나무토막처럼 다져져 옮겨 딛기도 어려운데 길목 곳곳마다 좁은 나무 틈새를 두어 속세의 영육의 때를 거부하는 완고한 외경, 그러면서도 툼툼히 전신을 쥐어짜는 고행의 손길 잠시 거두고 앞섰을 풀어 연적같이 깊은 속살 그저 무연히 드러내주는 인자한 모정(母情), 무슨 묵 주물러 빔어 놓은 듯이 부드러운 바위 살은 차라리 육감적이었고, 그 살 자리에 발을 묻고 노간주나무들.

바위가 부서지면 부서지고 세월이 무너지면 무너지라는 듯 유치환의 '바위' 위에 시로 세운 이육사의 '교목(喬木)'을 보며 느끼는 한

춤 바람만도 못한 내 영혼의 가벼움이여!

그 눈물어린 감동 한 가닥으로 잠시나마 속진(俗塵) 조금 빗겨 내고 이윽고 산줄기를 다시 타고 오르다 보니 길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가 확연한 수종(樹種)차별, 그것은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가 있다는 단호한 외침이었다. 길의 왼쪽 급한 비탈에는 온통이 참나무요, 오른쪽 조금 덜 급한 비탈에는 소나무 천국이니, 조화옹(造化翁)은 그 높은 바람맛이에 무슨 인연으로 무슨 심사로 소나무 천지를 연 것일까.

혹 하늘의 이상을 지상에 실현하려는 그리하여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속국을 따로 이 깊은 골에 만들어 챙기려는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더구나 그 왕국만으로는 모자라서 어느 낮은 나라 혼기 찬 공주를 데려와 이 험한 상상봉에 묶어 두고 있는 것일까? 그 총중(叢中)에 수정(樹中)공주는 역시 붉은 소나무였으니 수줍어 꼭 모으고 돌아설 듯 살짝 외로 거둔 두 다리는 밝은 빛 투명한 살결이 어찌 그리도 애뜻하던가. 요상하게도 가슴 미어져 차마 오래 훑쳐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두고두고 눈길을 무겁게 한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의 다리가 비록 늘씬하기로서니 내놓고 보라는 다리이니 신비함이 적고 단장한 살결이 아무리 매혹적이라 해도 인공이 가미된 것이니 상큼한 맛을 찾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적송(赤松)의 매끈하고도 혈색 고운 몸매는 보는 이의 가슴을 오히려 조인다. 아른아른하여 비칠 듯 말 듯 한 얇은 살결을 담배씨만치 훑쳐보고는 가슴 내려앉는 아찔함으로 끝내 길을 더듬거릴 밖에. 잠시 숨을 돌려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뭉클함이다. 미인의 매력을 경망한 분방함보다 조백 결들인 수줍음에서 더욱 얻는 것이 남자의 인지상정이라면 단정한 눈썹 살포시 들어 삼상(颯爽)한 송뢰 한 자락 풀어내는 가늠한 품행에 그 누가 삼십 년 굳은 직심(直心)인들 고집할 수 있으랴. 그리고 보면 누가 조물주라 해도 이 터전, 이 명

당에 이만큼 나라를 열고 이만한 미인을 데려다 묶어서라도 세우지 않을 수 없겠다 싶다.

그 험한 길 어느 언저리에 대궐 터가 있다는 말도 있더니 따로 대궐이 있다기보다는 이 적송(赤松)의 근락이야말로 제왕에서 구품 벼슬까지 죄다 자리 차고앉은 살아 있는 조정(朝廷)이 아니고 무엇이라. 아니 만 백성까지 요지 가지로 거느린 하나의 송국(松國)이라 한들 누가 시비할 말을 찾으랴!

왼쪽 천 길 비탈에는 무수한 참나무 병정들로 겹겹 호위를 세우고 오르는 능선에는 몇 마리 독사(毒蛇)로 수문장을 앉히고 그리고도 곳곳에 검색대를 세워 살집 있고 속세의 때 많은 자를 쏘는 위엄에 누가 두타산 부처님 머리에 발길 감히 올려 볼 마음이나 먹으랴!

범접 못할 신비가 부처님 자비의 거리는 아니로되 아뭇거나 귀천 없이 속인들 발길 닿는 대로 오르는 것을 막자는 깊은 헤아림이나 아닐는지. 참나무 병정을 왼 편으로 호령하고 목숨을 건 강직한 독사 수문장의 영접까지 잘 받고 수 차례 검색대까지 용케 거쳐 지나 갔지만 어설피게 닦고 조인 내 인생의 명세(明細)로는 아직 부처님의 손바닥에 올라설 업(業)도 비지 못한 듯하여 한참을 식식거리다가 중도에 돌아서는 발길의 무게를 헤아리자니 심사는 모래알 같으나 그것도 다 내가 지은 분수이거니 하는 자그마한 깨우침은 가벼워진 물병만큼이나 여유롭다. 하늘을 다 못보고 겸허히 내리는 길에 골골이 베풀어주는 억겁의 은혜로 담을 거두는 맑은 물 몇 모금은 신선이 즐겨 취한다는 유하주(流霞酒)의 풍치일 듯한데 감히 신선을 운위할 염도 못낼 일이나 땀에 전 어지러운 머리에서 고작 떠오르나니 그 어설피른 날말 몇 날. 언제 다시 알현할지 기약 없이 감감한 일이라 송왕(松王)께 하직을 고하고 다시 모습을 찾기 어려운 공주에게도 못내 아쉬운 무언의 인사를 남긴다. 산 아래 세상의 어지러운 소문 다 잊으시고 청청(靑靑)한 위엄과 도도(滔滔)한 자존으

로 천세 만세 왕업을 이어 가시옵소서.

임금님, 공주님, 억겁 세월의 무수한 분진으로 흩어지고 떠돌다가 어느 인연의 작은 골목에 스쳐 가는 바람으로나마 잠시 어울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삼생(三生)의 아름다운 연분인 줄로만 여기소서.

무섭기로는 무슨 땅벌같이 엄하면서도 땀흘리는 자식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한석봉의 어머니를 이 깊은 두타산에서 다시 뵈는 기쁨에 삼십몇 도 여름도 그저 감읍할 뿐이었다. 무릉계 맑은 반석 위에 젖은 남루를 풀어 내던지고 발 담그기도 황송한 육계에 참으로 부끄러운 육신 담그고 보니 우선 급한 대로 꿇던 숨은 고르겠으나 속된 죄가 하도 큰 탓일까 열에 한 각(刻)도 참고 앉아 있지를 못하겠네. 몇 번이나 물 속에 드날락거리며 점점 무릉(武陵)을 잊어가던 어부의 어눌한 잠 한 숨을 배우다가 어찌다가 속세에 맞는 내 옷을 찾아 다시 심신을 주저앉힐 밖에. 가슴 뭉클한 자그마한 법열(法悅)의 산행이었다.



술잔의 의미

영광고교 2학년 1반
김가나

몇 시쯤 됐을까...!

중간고사 3일을 앞둔 날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꿈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을 테지만 이번 주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 어디에도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그 무거운 눈꺼풀과의 씨름에서 승리해야 한다.

시계바늘이 2시 17... 18분을 가르킨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하얗게 밤을 지새운 어제의 후유증일까?

오늘은 정말이지 천근만근으로 몰려드는 잠을 물리칠 수가 없다. 언제나처럼 책상 서랍에서 일회용 커피 두 봉지를 꺼내 컵 속에 털어 넣고 부엌으로 향했다. 집 구조상 부엌엘 가려면 안방을 거쳐가야 하기에 식구들이 깨지 않게 발걸음을 조심조심... 도둑고양이 생선 훔쳐 먹는 양 안방문을 열었다.

방문을 열자마자 전축의 디지털 시계가 번쩍번쩍 빛을 내며 2:30분을 알렸다.

‘어? 부엌에 누가 있나?’

부엌에 불이 켜 있었다. 아까 달그락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는데...

부엌문을 기웃이 열었다.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고요한 10월의 가을밤. 땡~하니 부엌 안에도 냉기가 돈다.

그런데 그 냉기를 맞으며 소주병을 기우시는 사람... 엄마였다. 공음인가? 전라북도에 있다는데.. 처음 듣는 낯선 지역이었다.

엄마는 공음의 어느 마을에 자리잡은 농장에서 아주머니 몇 분과 하루 일당 3만원을 받고 일을 하신다. 벌써 녀 달 가까이 새벽 5시 30분이면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그 농장에서 보내주는 봉고차에 몸을 싣는 엄마였다.

늦은 시각 집에 도착해서는 밥 한술 뜯 기운이 없어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 듯 잠을 청하시는 엄만데...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그 돈 없이도 산다며 농장일 때려치우라며 호통치는 우리아빠.

아빠의 마음 또한 내 마음과 같겠지? 아니 더 아프실게다.

“집에 있으면 뭣해. 한푼이라도 벌어서 딸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이런 엄마의 말에 아빠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며 담배를 집어 무신다.

오늘도 9시 뉴스를 보고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내 방에 올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이 야심한 밤, 엄마의 깊은 잠을 깨운 정체 모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엄마는 단숨에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당신 앞에 앉히며 말씀하셨다.

“가나야, 아이고 우리 딸, 곧 시험이지? 열심히 해야지, 네 인생 네가 개척하는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엄마 같은 인생은 얼른 죽어야지.”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 열심히 할게..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종일 허리한번 못 펴고 일 하셨을텐데.. 피곤하실테니 어서 가서 주무세요”

“.....오늘 꿈속에서 엄마 어렸을 때를 봤단다.

유난히도 형제가 많아서 첫째인 엄마는 네 이모, 삼촌들을 돌봐야

만 했지.”

“.....”

“1년만 꼭 참고 열심히 해라 1년만 참으면 네 미래가 열리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엄마도 많이 배웠더라면 더 나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을텐데...”

목이 메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

당신의 눈물진 얼굴을 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신다.

작아져만가는 엄마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져 나 또한 그런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 얼른 일어나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의 그릇을 집어들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잠도 깰 겸 설거지나 좀 해야겠어요”

〈쌌아~〉

다행히 물소리가 큰 탓으로 내 울음소리는 묻혀질 수 있었다.

몰래 눈물을 훔치며 복잡하게 엉크러진 머리 속을 잠재우기 위해 마구마구 그릇을 닦는다.

“가나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도, 곧 3학년이잖니! 열심히 해라, 열심히.. 열심히 해야한다.”

술에 취하셨는지 감정이 폭발쳐 슬픔에 취하셨는지 엄마는 연거푸 ‘열심히 해라’ 를 되풀이 하셨다.

못 배운게 한이시라던 당신의 꿈을 자식에게 대신 이루게 하려는 부모님의 희생 어린 바램!

농장에서 새벽같이 박스에 배를 포장하여 나르며 이리저리 치어 몸이 성한 곳 없이 멍이 들어도, 피로가 누적되어 온몸이 저리고 결려도 당신은 못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일도 차에 몸을 실으시겠지요!

2년전.. 다락지가 난 것처럼 눈이 붓고 입가와 눈주위가 파닥파닥

뛰면서 풍기를 보이며 앓아 누었던 엄마.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추운 겨울 세탁기 한 대가 없어 찬물에 손빨래며, 설것이. 집안 일을 도맡아 모두 해야만 했던 그 시절..

그때 몸이 다 망가져 40대 초반인 지금 조금만 쌀쌀하고 바람이 불면 머리며 팔이 시리고 결려서 함부로 밖에도 못 나가신다.

한의원이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지어먹으라고 등 떠밀어도 괜찮다며, 무슨 약이냐며 너희들 학비 내고 공부 가르칠려면 돈 아껴야지.. 엄마 하나도 안 아파하시며 당신 몸 챙기지 않은 분... 우리엄마!!!

언제 이리 시간이 지났는지 저 멀리서부터 성큼성큼 햇살이 비춰 온다.

창 밖으로의 세상이 환히 빛난다.

‘제가 한살 한살 나이를 먹은 만큼 당신의 얼굴에 깊게 패인 골의 수가 늘고 당신의 뒷모습 또한 작아만 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당신 자신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약해지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햇살만큼이나 당신은 제게 빛나는 보석이며 희망과 꿈이십니다.

항상 엄마는 친척분들 앞에서 자랑하셨죠.

우리딸.. 어찌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농협이며 우체국에 엄마 대신 심부름을 잘 다녔어...

그렇게 자식 칭찬을 하시며 웃고 계시는 당신 얼굴 뒤로 저는 보았습니다.

한달에 한번 오는 청구서 용지며 학교에서 보내오는 학부형 말씀 용지앞에 어쩔 줄 몰라 고민하시다 힘겹게 말씀 하셨죠

“가나야, 엄마가 손이 아파서 글씨를 못 쓰겠구나. 인천 이모댁에 1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네가 좀 쓸래?”

처음에 저는 정말 손이 아프셔서 제게 대신 작성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뭐 찾을게 있어서 문갑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는데 검정 봉지에 둘둘 말아져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뭔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뒤지? 하는 생각에 꺼내 펼쳐보니 펜글씨 교재였습니다.

이런게 왜 여기에 있지? 궁금하메 훑어보니

<ㄱ ㄴ ㄷ ㄹ ㅁ... 가 나 다 라 마... >

연필로 정성스레 한자한자 또박또박 당신의 소망이 꼭 메워져 있었습니다.

못 배운게 한이 되어 남 앞에서 언제나 자신이 없으셨던 엄마.

하찮은 글씨 하나에도 예민해져 누가 당신 글씨를 보고 흥이라도 볼까봐 잠자는 우리들 머리맡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글씨 연습을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빼뜰빼뜰 비록 유창한 필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보다 더 크고 값진... 고귀한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성이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더 아름답게 고스란히 담겨있었거든요.

7살, 허리춤에서 당신을 높게 올려다보던 그때 그 꼬마가 18살이 된 지금도... 아니 100살이 되어 백발 할머니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했노라 자신 할겁니다.’

동티오는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당신의 숨소리에 힘이 납니다.



라디오

김해 중앙여고교 2학년 2반
노현주

“할아버지는 왜 라디오만 들어?”

“현주야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단다. 이라디오를 통해서 말이야.”

아직 새벽의 설빛기운이 거리 곳곳에 주섬주섬 깔려 있다.

부산행 버스 백삼십다시 한번, 백일장을 참가할 때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새벽의 수증기를 맞이하곤 한다. 버스는 속력을 내기 시작하고 창문틈으로 길고 슬밋한 빛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귓가를 맴도는 라디오 소리...

DJ의 감미로운 음성에 배어 있는 사연의 속삭임은 나의 귓바퀴를 맴돌아 달팽이관을 관통하고 가슴깊이 박힌다. 무릎 옆 좌석에 눈이 갔다. 머리위에 뿌연 서리가 내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끊임없이 가슴에 박히는 라디오 소리,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쁘셨던 부모님은 젖도 떼지 않은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나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품을 떠날줄 몰랐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다. 선천성소아마비... 백명중에 한명꼴로 걸린다는 그 흔치 않은 병의 주인공이 왜 할아버지 여야만 했는지, 아홉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잃고 시간이 지날수록 등이 굽었고 입술이 일그러졌고 모든 일에 하나 둘씩 의욕을 잃으셨다고 한다. 설상 가상으로 시력까지 잃게 되어 희미하게라도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리셨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하나의 희망의 서광이 할아버지

자신을 일깨워 주었고 칠순을 바라볼 때 까지도 당신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하지 않은채 당당히 살아 가셨다. 어렸을 때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고 징그럽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옛날이야기를 하시던 모습은 수험생의 길을 앞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간직되고 있다. 1급장애인증서가 집으로 우송 되던날,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자식이 있고 돌이킬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이 있었으리라.

“할아버지 왜 라디오만 들어?”

어린 나는 말뚱말뚱 일면 어두워진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른채 자꾸만 보냈다.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 만큼 아픈 소외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채 아물어가는 당신의 상처를 다시 다치게 했을 지도 모를 터인데 할아버지는 지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현주야,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풍경이 있지. 난 그것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본단다. 마음으로 말이야.”

그때 나는 어리둥절 하기만 했다.

라디오로 본다?? 라디오는 듣는 물건이지 않던가?

하지만 이젠 그 말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

한바탕 회상을 하고 나니 벌써 아침이었다. 여전히 버스는 달리고 있었다.

올해 추석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곁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이젠 없다.

유난히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작년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세상이라는 곳의 경이로움, 사람의 진솔한 이

야기를 마음 가득 담아 가셨으리라.

차례를 지내고 조용히 할아버지의 빈방을 둘러 보았다.

넓아서 색이 바래고 안테나가 꺾어진 라디오 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여백을 채워 주셨던 나의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잔심부름 따위를 하면서도 할아버지에게 짜증섞인 말투로 대했던, 세숫물을 받아오면서도 투덜댔던, 소변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그 시절이 지금에야 왜 이렇게 후회의 이름으로 나의 가슴을 때리는지... 후~ 먼지를 붙어 낸다. 두 손으로 가득 안아 본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져 두 볼에 주욱 눈물선이 그인다.

‘할아버지, 그 곳에는 라디오에서 보았던 세상을 비로소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보며 느끼고 있겠지요. 이 못난 손녀딸을 채 원망도 못하신채...’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

천안 광풍중교 3학년
박 소 희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드는 가을.
나는 올해도 어김없이 울긋불긋 물들어 가고 있는 단풍나무 아래서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따스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날,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단풍나무 그늘 아래 앉아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친근함과 인자함이 묻어났습니다. 4학년 때 인천에서 이곳 천안으로 이사와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던 그 때, 할아버지를 만난건 나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앞에 이사온 사람들이예요.”

“아! 그래요? 꼬마 아가씨도 왔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려무나.”

“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 보는 내게 내가 할아버지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말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엄마와 같이 간 그 이후에도 나는 혼자서 학교를 끝마치고 오면은 항상 단풍나무 그늘 아래 앉아계시는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소희 왔구나?”

나는 몇 시간을 할아버지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설새 없이 종알종알 말하기 바빴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귀찮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일일이 대답해 주

시면서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댁의 마당에 있는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과일을 수확하면 꼭 나에게 먼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아주 작은 단풍나무를 보았습니다. 한번 손으로 꺾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 할 것 같은, 발로 자칫 잘못해서 밟으면 금새 죽어버릴 것 같은 아주 아주 작은 단풍나무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단풍나무예요?”

“응. 그거는 단풍나무 씨앗이 땅에 내려와 생긴거야.”

“와! 정말요? 이것도 키울 수 있어요? 저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그래? 우리 소희가 물도 잘 주고 잘 보살펴 주면 클 수 있지.” 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모종 삽을 가져와 그 작은 단풍나무를 모종 화분에 옮겨 심어 나의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줄곧 자라온 나는 어떤 작은 식물 하나도 내 손으로 키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내 손에 잇는 작은 단풍나무는 기대감과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물도 주고 ‘언제 클까? 1년 후에는 이만큼 크겠지? 2년 후에는 이만큼 클테고...’ 하며 단풍나무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야, 그거 못 키워. 금방 죽을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빠를 뒤로한채 나는 “아냐! 할아버지가 물 잘 주고 잘 보살펴 주면 큰다고 했어. 나 이거 키울꺼야.” 하고서는 계속 단풍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부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단풍나무를 돌보고 할아버지께 가서도 종알종알 연신 말하는 것이 나의 하루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턴가 단풍나무가 시들시들 하더니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단풍나무가 죽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단풍나무가,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그래? 쫓쫓... 괜찮아. 처음이라서 그런거야. 이제는 잘 키울 수 있을꺼야.”

하시면 다시 작은 빨간 단풍나무를 모종 화분에 옮겨 심어 내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냐, 잘 키워라.”

나는 다시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집으로 와서 물을 주고 돌보아 주었지만은 단풍나무는 금새 죽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난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집 앞뒤로 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담이 생기면 할아버지 댁에 가기 어려워 질 텐데...” 나는 할아버지 댁에 빙 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담이 생기는 것이 못 마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담이 생기면 우리 소희 자주 못 보겠네? 이거 서운해서 어찌나?” 하시며 놀러온 나에게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네요. 제가 자주 놀러올꺼예요.” 씩씩하게 말하는 내게 할아버지께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환한 미소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새끼 손가락을 걸고 꼭 자주 놀러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은 모두 시집, 장가가서 도시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내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말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이 생기고서부터 할아버지를 찾게 되는 일이 드물어 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고나서 2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 도시 속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나에게 많은 정을 베풀어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단풍나무를 내가 키울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나의 희망과 기대감을 꺾지

않으시기 위해,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커가면서 나를 향한 할아버지의 깊은 배려를 알았습니다. 난 할아버지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동안 나는 할아버지께 정을 베푸는 법을 배웠고, 조금이나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말뼉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로 내 마음속에 남아 그 때 처럼 내가 어떠한 일에 실망했을 때 “괜찮아. 우리 소회는 할 수 있을꺼야.” 하시면 나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훌쩍 커버렸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가을에 나는 단풍나무 아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단풍나무 할아버지. 저 소회에요. 자주 놀러 가겠다면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계시던 곳을 보아도 그 자리에는 쓸쓸함 만이 묻어나네요. 잘 계시죠? 저에게 웃어주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립네요.’



백두산의 기상

광주 문흥중교 3학년 1반
이신무

2001년 7월 21일 토요일 나는 6박 7일 동안의 ‘옛 고구려, 백두산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 학교로 향했다. 이런 한밤에, 그렇지만 환한 거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니 이대로 중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에는 벌써 약간 긴장한 표정의 친구들, 여러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까지 주의 깊게 들은 후 버스로 인천 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시각은 새벽 4시였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어둠은 어느새 햇빛에 의해 사라지고 있고 버스는 대전을 넘어 10차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인천 공항까지 이어진 그 넓은 도로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특대형 트럭들이 수없이 달리고, 수많은 작은 승용차들이 그 사이를 질주하고 있고, 멀리 시멘트 냄새가 물씬 풍기는 회색의 대도시와 공장들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어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우리는 영종대교를 지나 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서는 온통 유리과 철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물과, 첨단시설, 쾌적함,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고 ‘우와~’ 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면세점이란 곳도 구경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고 비행기는 한참 뒤에 우렁찬 엔진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런 대단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이 안간다. 비행기가 조용히 구름 위를 날고 있을 때 나는 어릴 적 꿈 중의 하나인 ‘파일럿’을 다시 마음속에 그려본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중국으로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중국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발 밑의 세상을 내려다보며, 또 맛있는 기내식을 먹으며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땅에 진한 초록색의 작물이 끝없이 심어져 있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간 것보다 한국에서 중국까지 더 편하고 빠르게 오고 나니 기분이 묘해서 “여기가 중국이냐?” 하는 물음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나온다. 심양공항은 인천공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구식이었다. 한편 공항 주차장에서는 아주 고물 차가 있는가 하면 벤츠 같은 고급차도 많아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탈 버스는 우리들의 눈엔 통차로 밖에 안보였고 불평을 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심양에서는 매우 좋은 버스라니 어찌겠는가? 약간은 실망했지만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고 창밖에 중국 농촌 풍경이 펼쳐지니 모두들 밖을 보며 저마다 몇 마디씩 했다. 정말 이곳은 산이 없어 이상할 정도였고 드넓은 토지 위엔 거의 수수만 심어져 있었고, 길가의 대형 광고판은 모두 철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써 놓은 것이었다. 심양까지 가는 길에 수수만 보이니 이 많은 수수를 누가 다 거둘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출발한 지 한 1시간쯤 뒤에 현대식 큰 빌딩이 나타나더니 곧 심양 시내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정신없이 중국사람들과 길거리를 구경했다.

중국 대도시에는 자전거 물결이 친다더니 이곳 심양도 걸어가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사람들의 옷차림 또한 볼거리였는데 남자들은 윗도리를 입지 않기도 했고 많은 여자들이 짧은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에는 매우 큰 사거리 외에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량은 많았지만 차들은 마치 물 흐르듯 천천히, 차분히 움직였다. 차의 절반은 택시였는데 택시들은 한결같이 진한 자주색이고 차종도 모두 같았다. 한편 5층 정도의 아파트가 많았는데 페인트도 칠하지 않아 모두 회색이고, 겉모습이 완전히 옛날 아파트였다. 하지만 중심가로 들어갈수록 높고

큰 현대식 건물들이 낡은 건물 사이사이에 우뚝우뚝 서있었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나의 눈은 지칠 줄 몰랐다. 열심히 구경하고 있자니 버스는 어느새 우리가 점심을 먹을 북한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평양냉면 집에 도착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 북한인 점원들이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했지만 진짜 북한 사람이 나에게 정답게 인사를 한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질 않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냉면을 기다릴 때 점원은 우리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환영의 노래를 불러서 북한 노래 잔치를 감상하게 되었다. 나는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내가 정말 북한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한참 후에 냉면이 나왔는데 그때 먹은 평양냉면은 엄청나게 맛있었다. 지금도 나의 코에는 평양냉면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다.

점심을 먹고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조선족 제 6중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한 50년 전 공산국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녹슨 축구 골대만 있는 운동장에 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엄격한 대형으로서 있고, 정면에 있는 빨간 벽돌의 학교 건물은 담쟁이 덩굴이 반쯤 감고 올라가 있고 창문은 깨져있는 매우 낡은 건물이었다. 오른쪽에는 허름하고 높은 벽돌 담 너머로 시멘트 색의 구식 아파트가 보이고, 뒤쪽에는 규모가 크지만 매우 단순하게 생긴 건물이 윗도리를 입지 않은 장정들에 의해 차곡차곡 높이 지어지고 있었다. 이 공사 중인 건물도 회색이었고, 망치질 소리와 큰 물건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더욱 더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축하하는 행사로써 사물놀이, 판소리, 독창, 장구 춤, 고적대의 행진 등이 시작되면서 운동장은 즐거움이 감돌기 시작했다. 특히 친선 축구 대결에서는 1대 1로 비겨 모두 다 즐거울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2명 또는 3,4명씩 짝을 지어 민박할 6중

학교 학생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나는 한재현과 짝이 되어 택시를 타고 김정학이네 집으로 갔다. 정학이는 조금 뚱뚱하고 외향적 성격이며 한국말도 꽤 잘하는 2학년이다.

집에 들어서자 정학이 어머니께서 반겨 주신다. 나는 민막하는 집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전에 그럴 것이라고 설명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학이네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누나가 다른곳에 가서 없었고, 저녁밥의 반찬은 계란 후라이와 김치, 나물, 아주 작은 갈치튀김, 도라지인데 국도 없었다.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의 환상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와서 얻어먹고 잠자는 주제인데 불평하지 않고 맛있는 척 하며 많이 먹었다. 그 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하루를 되돌아 보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가서 여기 중국까지 날아와 6중학교에서 환영식을 치르고 정학이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눕기까지 20시간 가까이 깨어있는 동안 참 많은 것을 봤다. 재현이와 나는 앞으로의 중국여행은 더 흥미롭고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며 굳히 단잠을 취했다.

다음날, 중국에서 아침을 맞아 묘한 기분으로 잠에서 겨우 헤어났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밥을 먹고 정학이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 정학이가 40분쯤 걸리고, 값은 택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자고 했다. 택시를 타도 불편한데 기차같이 두 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타자고 하다니! 나와 재현이는 더럽고 자리도 없을 것 같아 결국은 택시를 탔다. 지금 생각하니 이때 나는 잘못했던 것 같다. 걸어서 지구 한바퀴 반 이란 책에서 '한비야'라는 한국 여성은 중국을 여행하면서도 그 나라를 몸으로 느끼고 싶어 일부러 더 고달프고 힘든 여행을 택했는데... 분명 나에게도 시내버스를 타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얻은 것이 더 많았을텐데 말이다. 아무튼 재현이와 나는 학교에 와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

고 매우 부러웠다. 다른 애들이 간 집에서는 외식도 시켜주고 시내도 구경시켜 주고... 특히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줘서 정말 배가 터질 뻔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나는 어찌다가 이런 집에 가게 되었는지 분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정확이가 정답게 웃으며 한국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생각하니 더 불평을 할 수가 없다.

이날 우리는 먼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궁궐로써, 북경의 고궁 다음으로 크다는 '심양고궁'을 관람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거대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다만 금색에 가까운 기와가 눈길에 끌었고, 옛날의 청 왕실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의복, 도구와 궁궐 안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궁궐을 더 잘 돌아보는 것보다 기념품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선생님들과 여행 가이드 아저씨께서 심양고궁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물건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결국 45원(元)을 주고 판다 곰이 그려진 먹을 하나 샀다. 45元이면 우리 돈 5000원이 넘으니까 엄청 비싼 충동구매였다.

점심은 만두집에서 먹었다. '물만두'라고 하는데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다. 배를 두둑이 채우고 다시 버스를 타고 청나라를 건국한 누루하치와 그 황후의 묘가 있다는 '동릉공원'으로 갔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길 양쪽에 뱀 같이 구불구불한 늙은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었다. 정말 중국 땅덩이에 걸맞은 모양과 높이였다. 108계단을 올라 성문 같은 곳을 지나자 심양고궁과 비슷한 누런색 기와지붕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성벽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무성한 숲에는 길이 있어 누구에게나 좋은 산책로가 될 것 같았다. 동릉공원을 떠나며 봐도 다른 것보다 소나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제 우리가 탄 버스는 기차역으로 간다. 거기서 연결행 기차를 타

고 14시간 동안 달려야 한다. 대도시의 기차역인 만큼 상당히 크고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2시간 동안 기차를 기다리며 남자들은 가방과 짐을 지키며 곳곳이 기다렸다. 나는 오줌이 마려워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역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 어찌나 더럽던지 똥을 밟고 서있는 것 같았다.

예정대로 2시간 뒤에 기차에 탑승했다. 우리 중국 체험학습단은 칸막이마다 침대가 3층으로 6개가 있는 기차 1칸을 전부 차지했다. 나는 배낭을 선반에 올려놓고 연길 도착후 그곳 조선족 학교에 기증할 카세트는 침대 밑에 넣었다. 처음에는 위 아래로 움직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침대에 앉아 만주 별판의 바람을 맞으며 지평선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객창감에 젖어보려 했다. 땅이 어찌 이렇게도 넓은가! 나는 광활하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옛날 이 별판을 누볐을 용감하고 힘센 고구려인의 함성이 빨갛게 마지막 빛을 발하는 태양 쪽에서 들려 오는 듯 하였다. 또 옛날 위인들이 가졌을 큰 뜻과 포부를 생각해보고 나도 이 드넓은 땅을 보며 나의 꿈을 이 세상에 펼쳐 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어 본다.

날이 저물고 몇몇 이들은 먹을 것이 가득한 수레를 밀고 지나 다니는 기차 승무원에게 맥주를 사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어떤 놈은 더 마셨다. 그래서 그놈은 비틀비틀 걸어다니며 “나 술 안취했어!”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걸 보고 어른이 되어서도 술에 취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밤에 나는 대철, 상익이와 함께 화투에 몰두했다. 처음엔 방법도 몰랐는데 어느새 나는 대철, 상익이를 상대로 연속해서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생겨 마지막으로 한점당 1원(元)내기를 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본 실력을 내면서 상익이가 돈을 쓸어가 버렸다. 그래도 재미있었고, 우리는 피곤해서 곧 잠에 떨어졌다.

“신무야! 일어나.”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오늘은 백두산에 가는

3번째 날이다. 기차는 7시쯤 연길에 도착했는데 나는 깜박 잊고 카세트를 놓고 내려 버렸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다. 나는 어찌할바를 몰랐는데 의외로 선생님들께서 날 진정시키며 역 공무원에게 말하라고 했다. 나는 카세트가 놓인 침대칸의 번호를 기억할 수 있어서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침대 번호는 '下18'이었다. 정말 큰일 날뻔 했다. 그래도 나는 다음 역에서 찾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초조하기 그지 없었다. 우리는 먼저 '동방미식'이라는 음식점에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모두들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그 다음 연길에 있는 조선족 3중학교를 둘러 볼펜을 목에 하나씩 걸어준 다음 정말로 백두산으로 향했다.

이제부터 6시간은 가야 백두산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거의 모두 잠을 잤다. 불편한 의자와 거의 100dB은 될 것 같은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게 자다 깨어보니 깊은 산골마을에 차는 멈춰 있었다. 여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나는 밥보다는 먼저 화장실을 찾았다. 그곳 역시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대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지만 나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벽돌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지만 높이는 1m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앞이 트여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더 긴장되고 무섭기도 했다. 퐁 한번 싸느라고 맥이 다 풀려 버렸다.

이제는 달리는 버스 양쪽으로 거대한 침엽수림이 이어진다. 드디어 우리는 버스로 갈 수 있는 끝까지 왔다. 먼저 장백폭포를 구경하러 갔다. 아니 가다 말았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몇 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만 갔다. 우리의 주위는 산들로 둘러 쌓여 있었고 앞에는 장백폭포, 그 위로 봉우리들이 보였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산들엔 나무하나 없어 거대한 암석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내 놓고 있었다. 그런 뼈만 보이는 산의 넓은 골짜기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는 작아 보였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경관이 처음으로 보는 큰 구조이기 때문에 거리와 크기를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흐르는 물로 세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폭포를 봤지만, 사진을 보는 것 같이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하고 가까이 가서 장백폭포를 체험하지 못한것이 아쉽고, 아까워서 돌아가기 싫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유흥온천의 뜨거운 물에 삶은 달걀을 사먹기도 했다.

이제부터 천지까지 이어 주는 블록으로 된 길을 따라 지프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하얀 자작나무의 숲에서 키 작은 관목들을 지나 풀색의 땅이 나오니 아마도 고산지대에 이른 것 같다. 한편 하늘은 맑게 개어 천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치게 좋고 기대되고 흥분된다. 지프로는 금방 저 꼭대기에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기보다 10배는 멀었다. 지프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60도 정도의 경사를 오직 위만 보며 달렸다. 숨은 차 올랐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아! 드디어 나 이신무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천지를 정녕 보고 있구나! 천지의 물은 바람으로 용의 비늘무늬처럼 파동이 일고, 2500m이상의 16개 봉우리는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비를 다 받아 낼 것 같이 벌려 서 있었고 저 북한쪽 봉우리에는 구름 한덩이가 천지의 물에 빨려 들 듯이 넘어오고 있었다. 자연이 만든 한반도의 왕관이라 할까! 아주 대단하고 권위 있는 한반도의 지붕다운 모습이였다. 나는 천지를 한 몸에 안고 싶어 두 팔을 벌렸다. 만약 내가 날 수만 있다면 저 호수의 물 한가운데에 입맞춤을 하고 천지를 한바퀴 돌아볼 텐데... 우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며 나는 이 백두산이 통일이 되어도 완전히 우리나라의 땅이 못 된다는 사실에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천지를 30분도 구경 못하고 시간상 내려와야 했다. 아직도 천지는 맑고 선명한데, 날

씨가 흐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만 내려가야 하다니 아~

지프를 타고 다시 내려오며 나는 천지의 '기상'을 기억하고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지의 봉우리들은 하늘을 꿰뚫는 듯 하고, 파란 빛 호수의 물은 세상의 이치와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하며, 그 천지 전체의 자태는 세상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듯한, 이런 '백두산의 기상'을.....

천지의 감동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이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런데 천지는 다른 경치와 다르게 사진으로 보면 그 웅장함을 다 알 수 없다.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가?

다음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뷔페로 아침을 먹고 용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윤동주, 함석헌, 김훈 등 항일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용정 중학교를 둘러 보았다. 그러다 아래와 같은 시구와 마주쳤다.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멋지게 쓰여진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전율을 느끼고 저절로 숨이 들이쉬어 졌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그 시구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일송정과 헤란강을 보고 북한과 중국의 두만강 국경지대인 도문에도 가 보았다.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해 연길로 가면서 곰농장을 견학했다. 나는 반달곰을 구경한 뒤에 곰 슬개즙이 들어있다는 피로를 회복하는 식품을 하나 샀다. 어떤 애는 웅담을 사기도 한다. 오후에 다시 심양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런데 이번엔 자리가 뒤죽박죽이라서 적당히 놀고 잠을 잤다.

중국여행 5번째 날이 밝았다. 우리는 심양에 도착해서 한국식으로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입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어 모두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 다음 석회암 동굴인 본계수 동굴로 갔다. 거기까지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쯤 되니 버스 타기가 질리는 것을 느

낄 수 있었다. 동굴 속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천천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은 섭씨 12도 정도로 꽤 싸늘했다. 그러나 종유석, 석순, 석회주 등 내용물은 한국의 고수동물 등과 비교할 때 보잘 것 없었다.

이날 점심은 좀 특별했다. 메뉴는 중국식 불고기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버스가장으로 3시 넘어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과 그 동안 식사에 불만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70명이 총 50인분을 먹여 치워버렸다. 이날은 홈스테이를 했다.

중국여행 6번째 날, 사실상 중국여행 마지막 날이다. 아침에 6중학교에 모여 모두 같이 청나라 제2대 황제와 황후의 무덤인 북릉공원을 구경하고 신라유적지도 잠깐 둘러보고 심양시내의 글로리아 호텔에 투숙했다.

다음날, 6중학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환송식을 했다. 나는 정학이와 주소를 교환했다. 정학이네 집에서 이틀을 묵는 동안 대접은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이 들어 작별이란 게 조금 슬펐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도 안 걸려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다시 느낀 것이지만 비행기란 기계는 참 신기하고 너무 빨라 외국이 얼마나 먼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갔다. 버스가 그토록 좋게 느껴질 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우리는 밤 10시에 6박 7일간의 여정의 출발점인 문흥중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와 있었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외할아버지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맞아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경험을 시켜 준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에게 이번 여행은 '백두산의 기상' 이 가장 큰 득이었다.



나의 도시락

여수 부영여고교 2학년 6반
김 세 희

“반찬이 이게 뭐야...”

투덜투덜... 항상 나는 내 도시락 반찬에 화가 났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엄마는 뭘 하시길래 반찬이 이모양일까?

내색은 못하고 입만 삐죽 내밀어댔다. 오늘도 그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아침부터 괜히 화가 나고 신경질부리기 일쑤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 성격도 고약스러웠던 것 같다.

난 부모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노래방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잠 부족으로 허덕이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에 오시면 청소도 다하고 주무셨으며 매일 겨우 5시간 정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시곤 했다. 부모님은 날 위해 그러셨다지만 어렸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점심밥을 먹기 위해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먹고 싶은 맘이 뚝 떨어졌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미역줄기가 퀘퀘한 냄새를 내며 도시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씩씩거리며 도시락을 그대로 쳐넣어 두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엄마에게 뜻하지 않게 화를 내버렸다. 엄마는 씩씩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럼.. 우리딸... 뭐먹고 싶어? 무슨반찬 해줄까?”

“딴 애들처럼 햄이랑 맛있는거 싸주란 말야..” 곧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맘을 왜 몰라주는 거야 ~ 엄마는...

그날 저녁, 나는 엄마의 마음은 모른채 여느때와 달리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평소에는 새근새근 자고있을법한 새벽녘에 나는 웬일인지 인기척에 깨어났다. 그리고, 부엌 한켠에서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향해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떴다. 그곳엔 사랑의 천사가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는 충혈된 눈을 거둬뜨며 햄반찬을 만들고 계셨다. 나는 계속 물끄러미 지켜봤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잠이 오는 것을 애써 삼키며...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을 데어가면서까지 우리 엄마는 날 위해 보잘 것 없는 딸을 위해 도시락을 만드셨다. 난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머금고 들킬세라 이불속에서 목메이게 울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다.

내가 학교갈 때 즈음이면 부모님은 한밤중이시다. 나는 자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아마 “사랑해요~”라는 이말 한마디가 그토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깊은 잠속에서도 날 위해 반찬을 만들고 있을 우리 엄마... 그 새벽에 도시락을 꾸려 주시는 어머니 힘들고 쉬고 싶으셨을 텐데도 나의말 한마디에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어머니”라는 말을 그제서야 조금 깨달을 수 있었다. 부모님께 힘이 되는 일은 참 많다. 조그만 말 한마디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듯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현재의 청소년들이 아무리 공경이란 것을 모른다 할지어도...

우리들의 부모님은 사소한것부터 가장 큰것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어릴적 내 작은 도시락 속 사랑처럼...



소설



신데렐라

서울 광양고교 2학년 3반

김영경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른데 저 사람이 걷고 있는 오늘과 내가 걷고 있는 오늘이 어쩔 이리도 같을까... 이 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설명 되지 않은 현상이다. 수 천명, 수 만명이 떠들어 대는 세상에서 나를 찾아 낼 뽀족한 방법이란게 머리속에서 묵묵부답이다. 짜증나는군. 하루에도 몇번씩 되뇌이는 말이다. 구름마저 화가 난 듯 보기 좋게 구겨져 있는 모습에 기가 찬다. 얼마전 영화에서 본 기억이 떠오른다. 크고도 커서 곳곳이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사실 외계인놈의 장난감 칩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 이렇게 품위없이 걸으라고 명령 내린건 어떤 외계인 놈인지 분할뿐이다. 아니지,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과대망상증이라도 단단히 걸린 모양이군. 외계인이라니... 무슨 얼빠진 소린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멋대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똑같은 망상이다.

“저리 비켜요”

다시 떨어진 지옥이다. 불쾌하게 맞붙은 서로의 몸 사이에 진한 현기증마저 난다.

똑같은 시간, 언제나 똑같이 나서는 출근 길에 부딪치는 첫 전쟁이다. 기필코 이들 사이에서 승리하리라. 눈을 질끈 감으며 거세게 밀어붙이는 아줌마들 하고는 다르게 이것들은 안 그런척 하면서 은근히 민단 말야. 그렇다고 밀릴 내가 아니다. 뽀족 구두에 떨어지는 듯 미묘한 긴장이 전해 진다. 아차, 방심한 사이에 밀리다니... 그것도

교복 입은 단발머리 여학생에게. 요즘 여학생들은 많이들 먹어서 그런가 힘도 좋구만. 첫 전쟁의 패배에 긴 하루의 무게가 한꺼번에 달려 온 듯 맥이 풀린다.

그런대로 닳은 흔적이 보이는 바닥에 또각 또각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가 귓가에 전해온다. 은행원이 웬 구두에 신경 쓰냐고 엄마는 무어라 하시지만 그게 뭐 대수란 말인가. 생글생글 웃음기 어린 인사를 오늘도 어김없이 은행 곳곳에 뿌린다. 언젠가 무언가를 안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어설픈 손놀림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점장님은 오늘도 전전공공이시다. 누구를 가위질 할까 아마도 고민 중이시리라. 허나 내 상관할 바 아니다. 싸늘하게 잘리는 건 내 주위에 그 누군가 정도 일 것이다. 얼마전 결혼한 언니, 혹은 며칠전 고객과 언성을 높인 내 친구양이 될 터이다. 세상 떠나가듯 한탄을 늘어 놓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자 정당한 게임의 법칙인 것을... 이렇게 자신 할수 있는 이유가 무어나고 묻는다면 우습게도 그 답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약속하신 고객님이라는 미명 아래 긴 하루를 그들과 보낸다. 기계적인 만남, 짧게 스친 시간에 나의 모습은 기진 맥진이다. 수 없이 마주치는 얼굴들. 제각기인듯, 그러나 모두 같은 모습으로 휩쓸렸다가 왔다가는 이내 그렇게 빠져나간다.

기계적인 만남에 이제는 회의감 마저 난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었다. 서로에게 부담없는 관계, 정해진 서너 동작으로 우리의 인연을 끝을 맺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는 어떠한 의미로도 채워져 있지 않는다. 채 완성되지 못한 켄트지의 허전함이라랄까.. 별볼일 없이 보이는 단 몇분간의 만남이 허전함이란 대가로 치뤄 지는게 당연한 걸까. 알지 못했던 세계로, 오직 나만을 갖고 두근거림에 뛰어 들었던 여기가 진실한 그곳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째각째각, 푹푹푹, 톱탁톱탁... 예수의 구원보다 더 감사한 시계의 종소리가 한번, 두번 울릴 때마다 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구하시러 시계만은 잠재우지 않으셨군요! 잠든 듯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 활력 있는 그 하나를 본다. 마감시간을 앞두고 급박히 은행안으로 뛰어 오는 손님들 처음과 끝이 모두 같은 인생일뿐인데 무엇을 뒤바꾸려고 저렇듯 쫓기고 쫓기며 살아가는 걸까? 푸하하...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진다.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내가 아니었던 말인가.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아보리라. 언젠가 너희들 모두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며 나의 기분을 사려고 허우적 되겠지. 퇴근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에 내 꿈속의 꿈이 흘러진다.

“여기요”

딸까지 낳아 어엿한 엄마가 된 언니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잡아탔다. 거기에 가면 조금은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라. 늦은 오후시간, 세상에 찌든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춰 보인다. 저기 보이는 나는 진실한 내가 아니다. 요즘 정말 내 자신을 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나 이상만을 쫓던 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왠지 주춤 주춤하는 정신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분명 똑바른 길을 알고 있는데,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아졌다. 한순간의 방황이 어서 끝나기를, 그리고 세상에 의해 옳은 길이라 정해진 그 길을 서둘러 나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벌썰 몇번째 신호등에 걸린 택시처럼 내 이상을 향한 마음도 어느 장난기 어린 신호등의 빨간불에 멈춰있으리라. 출발하는 택시 걸을 구세군의 빨간 모금함이 스친다. 어느 물렁한 사람들이 저 통에 거금의 돈을 넣었다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다고 세상이 겁하나 먹을 줄 아나. 세상은 언제나 강자이기에 그대로 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빨간 모금함은 매년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마음을 합쳐 크게 한탕 도왔다면 빨간 통이 조금씩 움츠리는 시늉이라도 보였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 이상... 잠시 딴 생각에 젖어 든 사이 택시요금은 쟁쟁히 뛰었다. 택시기사의 엉터리 조작술이겠지. 세상에서 나를 감추듯 황급히 요금을 지불하고는 뒤도 안보고 걸었다. 멍뚱... 찰칵... 따스한 온기가 나를 맞아준다. 가족이란 언제나 그랬듯 눈물나게 정겹다. 이기주의라는 주위의 평에 무색하게도 나는 가족이라는 도피처를 가장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어루만져 주는 힘이 있다. 안도감에 커다란 기지개를 펴자 곧 미운 일곱 살의 조카가 보란 듯이 두손을 편다. 예잇, 이견 못하겠지? 야단 맞겠지만 침대 위에 쟁쟁히 올라가 두 손으로 천장을 거뜬히 받친다. 자존심 하나 먹고사는 일곱 살이기에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 될 사이도 없이 이 만큼 뼈죽 나온 조카의 입과 번쩍 치켜들은 주먹을 피할 궁리에 머리 속이 난리가 났다. 그때 문득 침대 밑에 뼈뎀이 고개를 내민 동화책이 보였다. 거친 세상도 평정한 내가 이런 어린애쯤이야. 조카의 주먹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 무사히 동화책을 손에 쥐었다 이리 와, 이모가 재미있는 동화책 읽어 줄게. 썩 내키지 않다는 듯 엉거주춤 서 있는 조카에게 다음에 올 때에는 마루 인형을 사주겠노라 약속도 장까지 찍고 나서야 무릎에 앉힐 수 있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는 계모에 구박에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핏박도 견디는데 그깟 계모에 구박이 무엇이 대수랴, 흥!” 그런데 어느날 왕자님이 사는 궁전에 파티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 두 언니와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어려운 집안 일을 맡긴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드르렁~쿨.. 어이구, 현관 밖은 아직도 시끌시끌 할 시간인데 천하태평 잠도 쿨쿨 잘 자는구나. 하긴 꼬맹이가 무슨 걱정이 있을라구.

그나저나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어린시절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을 터인데 생전 처음 보는 동화 같다니. 슬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이성이, 세상의 잣대가 맞물려 새로이 단장한 듯 다시 나타났다. 자기 실속도 못 챙기고 어리석게 구박이나 받고 사는 신데렐라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지나쳐 어리석어 보였다. 한 장씩 넘기며 재구성 하니 해설이 줄줄이 흘렀다. 어렸을 적에는 ‘분명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이다. 헌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성공을, 성취를 위해서 착한 일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의례껏 동화책 속에 주인공들은 언제나 복을 받고 세상 누구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다 갔다고 하질 않았다.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나. 그들처럼 착한 듯, 모자란 듯, 어려운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줄 듯이 산다면 언젠가 동화 속 행복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리요. 젠장, 더러운 먼지들이 내 시야마저 물들었군. 나를 조종하는 작가님이 어떤 결론을 맺든 다부질 없는 짓이다.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한다고 하질 않던가. 더럽게 살지 않아도 나만의 행복을 하나 둘 찾아 나서는 즐거움 또한 건줄 바가 무엇일까. 악착같이 성공 아니면 실패, 나 아니면 너 이러한 갈래의 길에 추하게 매달려 왔던 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이었다. 20년 넘게 쌓아 온 내 인생이 어리석은 전리품들의 완성작으로 둘 수는 없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자가 또한 나 아닌가. 후훗... 그래도 아직은 네모난 틀의 꼭두가시 세상에 미련을 못버린 모양이군. 뒷말이 씩씩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되뇌이며 순진한 듯 꿈속에 잠든 조카를 바라보았다.

“저리 비켜요”

위잉... 비디오 테잎을 되감듯 어느새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었다. 마치 어제의 나처럼, 그제의 나처럼. 그리고 내일의 내 모습이라.

부딪히는 몸을 살며시 빼돌린다. 굳이 저들과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웃으며 지내기에도 부족한 하루일텐데. 갇잡은 하얀 마음이 새삼 놀라는 내 모습에 붉게 물든다. 이만하면 오늘 하루는 최고의 날이 아닌가! 적어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는 아침의 공기. 온 몸을 새로이 하듯 한껏 들이킨다. 흥, 서울공기가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군. 시꺼먼 매연 속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던 말인가. 바보스런 모습인데도 자존심양은 별 다른 반응이 없다. 굽이 낮은 구두에 울리는 소리가 맑지 만은 않다. 정리하고 이막이 열렸음을 알리듯 ‘따따따’ 발걸음이 고요한 적막 사이를 머쓱한 듯 다가간다. “여어.. 미스 강 이제 오나”

정해진 게임의 법칙처럼 언제나 하던 나의 역할이었다. 저런, 지점장님이 저런분인 줄은 몰랐는걸. 저건 이쯤에서 내가 해야 할 대사가 아니던가. 검은 고양이의 꼬리를 살짝 밟은 듯 나는 움칠 거렸다. 미묘한 변화로 행복했던 하루가 아주 화려한 장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등장할 장면이 아니다. 이유있는 안도감을 가면에 맡긴채 어서 유죄를 선고 하시지요. 능력없음이 죄가 되는 것일테니깐.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빠빠용의 석방으로 다가 올 것이다. 유죄판결과 더불어 궁색스런 변명을 주절대는 지점장을 뒤로 한채 콧방귀나 끼며 폼나게 은행문을 여닫았다. 오늘 하루는 정말 재수가 좋군. 언제 한번 상사의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겠나. 날아갈 듯한 해방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누구라도 현실 도피라고, 뭐 해먹고 살거냐고 입만 뻥긋 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이까짓 은행에서 짤렸다고 세상 다 산것도 아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이지. 이건 나만의 나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헐어진 책을 펼쳐 나와 새로운 동화속으로 성큼 들어섰다. 분명 이 동화에선 내가 주인공일 것이다 왜냐면... 바로 내가 작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영광고교 2학년
고옥란

손끝만 내놓아도 얼어 버릴 듯한 추운 겨울의 수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희자 아빠는 여지없이 마루에 술과 멸치 몇 개만 갖다놓고 코를 쓰다듬으며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방안의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 형태만 알아볼 수 있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 희자를 부르더니 반쯤 뜬눈으로 그 지겨운 말을 내뱉었다.

-니가 구김핵교 땡길 때 선생님한테 아버지를 절로 존경하고 그랬어야, 그것 땀에 나 엄마 죽고 나서 지금까지 힘든 공사일 다하고 너 키운 거여. 알기나 허냐? 니가 공부는 잘못 했었지 만서도 이렇게 이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 한다.

-또 그 소리야? 추워죽겠는데 왜 마루에 앉아서 술 먹고 있어? 얼어죽을 거야? 술 그만 먹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 술만 먹으면 그 소리야.. 애기 때 한소리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제발 이젠 그 소리 좀 그만 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도 그것이 내 희망이여. 딸한테 존경받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다.

-내가 지금도 존경하는지 알아? 집안은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술 먹고 와서 희망이니 뭐니 그런 소리만 하면 뭐하냐고..

-희자야, 그런 소리 마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여.. 너라도 아빠한테 음..음..

-할머니! 아빠 좀 방으로 데리고 가! 마루에 쓰러져서 자고 있어. 으이구. 지겨워 죽겠어..

-희자야 아빠한테 왜 그러냐?말을 그라코롬 싸가지 없게 해야 쓰것냐?

-몰라...할머니가 알아서 해

희자는 인상이란 인상은 다 구기고 철판으로 만들어져 녹이 슬어버린 대문 같지 않은 대문을 꿩하고 발로 찼다. 그리고 휴 하는 한숨소리와 함께 중얼거리면서 나갔다.

아빠의 모습은 머리를 감지 않아 언제나 기름기가 흐르고 부스스한 머리, 팽하고 패여져 있는 눈, 수염을 깎지 않아 더러워 보이는 얼굴, 옷은 어디서 주워 온 것 마냥 때국무리 가득하고 파랑색도 아니고 남색도 아닌 우중충한 잠바 하나를 걸치고 마루바닥에 앉아 술을 먹었다. 아빠의 모습은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술을 먹고 주정하는 모습으로 그녀의 머릿속 현상소인 눈에 박혀 버렸다.

희자는 마루에서 소주 두 병을 비운 채 앉아서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는 아버지를 뒤로 한채 뛰쳐나왔다. 밖은 바람이 살 속을 파고 들 정도로 추웠다. 어둔 밤거리였지만 가로등의 주황색 불빛에 눈이 휘날리는 것이 보였다. 연탄이 떨어져 춤기 때문에 집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밖에 나오자 희자는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희자는 슬리퍼로 자신을 발길을 가로막는 눈을 걷어찼다.

-추워 죽겠는데 이거 무슨 짓이람...집에만 들어가면 저 소리니..으..짜증나..집에는 들어가기 싫은데..어디로 가지?희자는 작은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깨를 한껏 움츠린 후 뒤통거리며 뛰어갔다. 그리고 공중전화 앞에서 멈췄다. 곧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는 이리저리 휘젓더니 백원 짜리 동전을 꺼내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거기 선미네 집이죠?어?선미야. 나 희자야..지금 너 혼자 있어? 그래?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가셨어? 할머니 댁에 가셨어? 잘됐다. 나 집에 안 들어 갈 건데 너희 집에서 자면 안될까? 선미야...

응? 한번만...그래! 알았어

희자는 전화를 끊고 자기가 걸어온 반대쪽 방향으로 달려갔다. 따가운 눈이 희자의 얼굴을 때렸다. 희자는 붉으스름 하게 된 볼을 가느다란 손으로 쓰다듬었다.

희자는 화가의 수목화처럼 어둔 밤하늘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 공백의 여유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곁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위로했다.

조용한 거리에서 희자는 인도를 조금 벗어나 도로위로 나갔다. 더 이상은 걸어가지 못하겠다고며 택시를 잡았다. 하지만 작고 허름한 집들뿐인 그녀의 동네에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는건 당연했다. 그녀는 시내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미 집에 그냥 가면 좀 그렇겠지..선미가 좋아하는걸 사가야겠다...햄버거 가게는 없는데...

시내로 나가야겠다..지나가는 차도 없네..조금만 걸어가지 뭐..에휴...출다..

총총걸음으로 발목까지 쌓인 눈을 이리저리 치우며 걸어갔다. 시내에 도착하자 엄청난 인파속에 그녀는 끼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자신이 사는 곳과는 정반대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캐롤이 이리저리 흘러나왔다. 산타크로스 분장을 한 사람이 그녀에게 인사를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돌아섰다. 산타크로스 분장을 한 사람은 이미 많이 당해봤다는 듯이 큰 입술이 그려진 얼굴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희자는 햄버거 집을 찾았다. 사람사이게 끼어서 간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희자는 조금 큰 듯한 입술을 빼죽거리며 자신을 막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잡아 밀었다. 희자는 맥도날드에 들어갔다. 늦은 밤이었지만 사람은 정말 북적였다. 자신의 동네에는 사람이 없어 시내에도 없는줄 알았던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짜증이 났다.

차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 개의 분명한 선이 미간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 희자는 햄버거를 사고 그곳을 나왔다.

10분 정도 버스를 타고 희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내렸다. 아주 조용했다. 사람은 없었고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비취는 불빛만이 여기가 집이라는 걸 알려줬다. 그쪽의 집들은 아주 큰 대문을 가지고 있었다. 희자는 하얀색 벽으로 가려져 있는 큰 집 앞에서 벨을 눌렀다.

-희자구나? 빨리 들어와.

자신이 희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큰집의 대문이 열렸다. 희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름에는 푸른 정원이던 곳이 이젠 많은 나무들 위로 눈이 이불을 지어 놓 것처럼 쌓여 있었다.

하얀색 가디건을 입고 약해 보이는 듯한 몸집을 바람결에 날리며 선미가 계단으로 내려왔다. 한참이나 걸어 내려오더니 희자의 손을 잡고 웃었다. 살짝 들어간 보조개가 예쁜 선미의 시원한 웃음이 텅 빈 희자의 가슴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채워 주었다.

-희자야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너 정말 방학이라고 연락도 한번 안하고...그럴 수 있니?-미안해...그래서 이렇게 왔잖아..근데 추워 주겠는데 계속 여기에 세워둘 거니?

-아..미안.....어서 들어가자...

희자와 선미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등불 4개가 눈 쌓인 대리석 계단과 희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베이지색 계통으로 소파와 탁자 커튼이 꾸며져 있었다.

희자는 새로운 집안의 분위기에 신기한 듯 고개를 움직이며 둘러보고 있었다.

-선미야..여름에 왔을 땐 하얀색이었잖아...

-응..그게..내가 베이지 색으로 바꾸자고 했어...따뜻해 보이잖아...

-그럼 여름에는 또 바꿀 거야?

-모르지..여름에도 이걸 예뻐 거 같은데...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들었겠다...

-조금...

-이쁘다..우리 집하고 비교되는데 ...후후

-애는...무슨 그런 소릴 하니? 내방으로 들어가자

-잠깐만...내가 햄버거 사왔는데 부엌에서 먹고 들어갈까?

-진짜? 안 사와도 되는데..애는 그런걸 사오니? 헤헤 그런 건 내 방에서 먹어야 해..오랜만에 왔는데..귀한 손님을 부엌에서 있게 할 수는 없지..안 그래?

-하하 ...나도 손님이나? 암튼 빨리 들어가자

나무로 된 계단의 손잡이를 잡고 둘은 올라갔다. 선미의 방은 2층에 있었다.2층에는 방이 3개가 있다.귀여운 꼬마가 기도하는 모습이 수놓아져 있는 문은 선미의 방문이고 그 옆에 있는 방은 유학 간 언니의 방이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었다. 그리고 한 곳은 언니와 함께 쓰던 옷장...선미 아빠는 선미와 언니를 무척 챙겼기 때문에 선미의 아빠가특별히 만들어주신 곳이었다. 그곳에는 많은 옷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희자가 입고 싶었던 치마나 바지도...

선미는 희자를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희자는 선미의 방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다른 곳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선미의 방에는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작은 침대만이 있을 뿐이었다.

-니 방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어? 너 여름에 왔을 때 내 방에 안 들어 왔었어? 그랬구나...

응... 왜냐면 아빠한테 그냥 내 방은 아무 것도 넣지 말라고 했어...
내 성격상 화려한 장식품이 있는 건 정말 싫거든...

-참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런 곳에 사는 것도 부러운데.. 우리
아빠가 부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하겠다. 비싼 옷도 사달라고
하고.. 또 해외로 놀러도 가고 싶고.. 참 년 해외에 나가 본적 없다
고 했지?

-응...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 하하..

-하긴..나도 정말 쪽 팔릴거 같아.. 하하..

-난.. 그냥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크고 넓은 집에서 사는
거 너무 싫어..

-너 그런 소리하지마.. 나 기분 나빠진다... 너처럼 부자로 사는 애
가 그런 소리하면 꼴 보기싫다고 애들이 뭐라고 해.. 니가 작은 집
에서 살아봐.. 우리 집은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거라고 할 수 있
지만.. 돈 때문에 겪는 고통을 넌 모를거야.. 너희 아빤 해달라는 대
로 다줄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아빠도 잘 안 줘.. 한 달에 용돈도 5만원씩 맞춰서
주고 가게부도 쓰라고해

-난 그럴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휴..

-애는..참 여기 앉아.. 계속 서서 이야기했네..

희자는 침대에 앉았고 선미는 의자에 앉았다. 희자는 선미의 이런
수수한 모습이 좋았다.

부자이면서도 잘난 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좋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열등감이있어 선미를 보면 부럽기보다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곤 했다.

희자는 비닐봉지에서 햄버거 두 개를 꺼냈다.

-선미야... 햄버거가 식어버렸는데 데우자.. 내가 부엌에 갔다올게...

-아니야... 니가 왜 가니? 손님인데... 내가 갈게...

-그럼.. 같이 가자..

-그래..

희자와 선미는 다시 내려가 하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과 싱크대가 모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희자는 자신의 집과 비교를 했다. 희자의 집에는 식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조그만 상에다가 반찬 한두 가지 정도 올려놓으면 끝이었다. 싱크대는 그림의 떡이었고 흙으로 만들어진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요즘에 가마솥에 밥을 짓는 집이 거의 없지만 희자의 집에서는 쓰고 있었다.

-우리 집은 가마솥이 있어... 골동품이라니까.. 그거 팔면 꽤 많이 받을텐데...근데 그거 팔면 우리가 밥을 못 먹고사니... 참..

-아직도 가마솥이 있어? 우와 멋지다..

-멋지긴 머가 멋지냐? 넌 너무 감상적인 거 같애.. 현실을 보라.. 아가야..

-애는.. 내가 아직도 어린애 줄 아니?

-어린애지 그럼 뭐냐? 호화스러운 집하며 나가기만 하면 보디가드 들이..

-야.. 그건 오버다.. 나 보디가드 없어... 하지만 생긴다면 영화를 찍어보는 거야.. 내가 휘트니 휴스턴이 되서... 랄라...

-어머.. 애 좀 봐 ... 너 어디 아프니?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니가 오니까 좋아서 그렇지... 하하

-그만하고 햄버거나 데워...

-알았어...

선미는 희자가 사온 햄버거를 들고 흥얼거리면서 전자레인지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갈 때 들리는 기계소리로 리듬을 타더니 발을 들썩거렸다. 사람과 기계의 조화였다.

삐삐삐- 전자레인지에서 소리가 났다.

비트에 맞춰 몸을 약간씩 흔들던 선미가 한바퀴를 뺑하고 돌더니
검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단추를 눌렀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햄버
거를 두 손으로 꺼냈다. 하지만 햄버거가 뜨거웠기 때문에 아빠! 하
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고 있던 햄버거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어떻게 해... 떨어져 버렸네... 희자야. 미안해... 너무 뜨거워서
그만...

-애는 그런 소리 말아... 그런데 손은 괜찮아? 많이 아파?

-아니 ... 좀 붉게 달아올랐어... 괜찮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뭐를? 햄버거? 먹어야지... 이 아까운걸 버리니?

-그래.. 먹자.. 곁에 봉지로 덮여있는데.. 먹고 죽기야 하겠어?

-하하.. 그래..근데 너 참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위험할 때 엄마를 외치던데 넌 왜 아빠를
왜치냐?

-아... 나도 몰라... 아마 내가 아빠를 더 좋아해서 그런가봐.. 엄
마는 좀 차가우신 분이어서 좀 피하게 되더라고...

-참... 너 정말 아빠 좋아하는구나...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은 뒤에 허리를 굽혀 바닥
에 나뒹굴고 있는 햄버거 두 개를 집고 쟁반에 올려놨다. 그리고 선
미의 방으로 향했다. 선미도 손바닥을 입에 가까이 대고 후후 불며
뒤를 따랐다.

방으로 들어오자 희자는 침대에 몸을 날렸다. 선미는 햄버거를 들
고 걸표지를 벗겼다.

-희자야, 먹자..

-그래..

-근데 희자야.. 너희 아빤 햄버거 좋아하시니?

선미의 갑작스런 질문에 희자의 얼굴은 굳어졌다. 언제나 술에 찌

들려 살던 아빠는 희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희자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술 먹는 것 밖에는 본 것이 없었다.

-우리 아빠는... 모르겠어.. 술 드시는거 밖에 본적이 없어서...

-어머..진짜?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게.. 정말...그런 건 왜 묻니? 그리고 나이 먹은 어른들이 햄버거 같은걸 좋아하겠니?

-왜 화내고 그래.. 난 그냥 우리 아빠도 좋아하시길래 너희 아빠도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너희 아빠가 햄버거를 좋아하신다구?

-응..내가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퇴근하고 집으로 오실 때 햄버거를 사오시는데 꼭 두 개씩 사오셔... 엄마는 햄버거만 보면 치를 떠시는 분이어서 냄새만 나도 뭐라고 하셔서 내꺼랑 아빠 것만 사오셔... 아빠도 잘 드시던데...

-난 클린턴 대통령이 옛날에 미국 애기들이랑 같이 먹던 사진 빼고는 어른들이 먹는 거 한번도 못 봤다.

-그래? 난 어른들이 다 드시는 줄 알았는데...

-아마 너희 아빠가 너랑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

-수준?... 그럼 내가 수준이 낮다는 소리야?

-그게 아리라... 딸하고 세대차이 날까봐... 그러니까 딸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먹는다는 거지..안 그래? 우리 아빠는 햄버거가 뭔지...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실 거다. 사준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지만...

-야.. 그래도 너희 아빠가 언제나 그 소리만 하신 다며...

-무슨 소리? 아.. 그 희망이 어찌고 저찌고?...

-그래... 니가 어렸을 때 한말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신다는건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 다는 뜻이 아닐까?

-야.. 그건 술 드셨을 때 주정 부리는 거야.. 술 안 드시면 아무 말도 없고.. 도대체 방안에서 뭘 하는 건지...

-그럼 니가 먼저 말을 걸어보던가 아님 방에 들어 가보면 되잖아!

-술 냄새 나는 방에 내가 왜 들어가냐?

-근데..희자 너희 집 좁다면서 니 방 따로 있어?

-응..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방을 나뉘어.. 나무판자로.. 아주 좁아..두 평도 안될걸...

-그랬구나.. 야! 그럼 바로 옆인데 아빠한테 말이라도 걸어보지는...

-싫다고 했잖아...그리고 이젠 아빠 이야기는 그만 하자.. 니가 아무리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 니가 싫어질 거야.

-알았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햄버거나 먹자

희자의 단도직입적인 말로 방안의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11시 15분을 가리키는 시계초침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둘의 귓속을 점점 크게 헤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햄버거를 조금씩 뜯어먹고 있던 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큘큘..선미야.. 미안해..너도 알잖아..내가 아빠 이야기하는거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니가 왜 그렇게 아빠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어...

-휴.. 니가 우리 아빠랑 살아봐...하루만에 집 뛰쳐나올 거야..

-그런 소리하지마...지금까지 키워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넌 몰라..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일해서 학비 내고 밥 차리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효녀상 준다고 하더라.. 참..

-효녀상? 니가? 하하하...

-왜 웃어... 나도 효녀상 받을만해...

-야! 무슨 효녀 상을 받아...이렇게 아빠를 싫어하는데 받을 만 하다구?

-그래... 나처럼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을 받겠니..
알아... 나도...

희자의 눈은 몽롱해졌다. 정착지 없이 떠도는 희자의 검은 눈동자는 마침내 선미의 눈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희자는 눈빛으로 선미에게 애원했다. 아빠를 사랑하고 싶지만 아빠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면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원망과 증오만이 가슴속에 맴돌아.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줄 알았고 제일 존경한다고 했지만 커갈수록 실망감만 커졌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에 돈이 없어지자 아빤... 술만 드셨어... 그런 모습을 보고 난 좋아 할 수 있겠니? 아무리 나를 낳은 부모라지만...사랑하는 마음이 생기 질 않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희자는 선미에게 애원했다. 선미도 희자의 눈빛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의 침묵 속에서 둘은 정처 없이 맴도는 나그네가 되어 버렸다.

-희자야.. 니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알아... 모든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까지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너희 아빠가 지금도 술에 취해있다고 해도 너를 걱정하고 계실 거야... 말도 없이 가버린 딸을 찾고 계실 거라구...

-그렇까..

-그래, 니가 저번에 그랬잖아. 니가 아빠한테 말도 안하고 친구들하고 놀러갔을 때 니가 안 들어오니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잠들어버리셨다고.. 그때 니가 너희 아빤 바보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눈물 흘려 놓구선... 자기 땀에 여름날에 걸리지도 않는 감기에 걸렸다면...

-아... 그거... 근데... 솔직히 그거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왜 기다리냐구... 그렇게 얇게 입고서 새벽에도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

을 거 아니야...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야! 너 오늘 그냥 집에 가라..

-왜? 엄마랑 아빠도 안 계신다면서?

-아빠가 걱정 하실 거 아냐..

-걱정 마... 지금 잠드셨을 거야... 내가 어디 간 줄도 모르실 걸?

-그래도... 가봐... 걱정 되잖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너희 아빠 니가 안 오면 꼭 기다리신다고 했잖아..

-그게...

-얼른 가봐...

-휴... 그래 가봐야겠다...

희자는 길게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일어섰다. 선미는 희자의 손을 잡고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대문 앞까지 대려다 주고는 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희자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녀의 입술에는 쓴 웃음만이 가득했다. 너무도 많은 애길 해버렸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서 동정보다는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게 했다.

눈은 그쳤지만 아직도 거리에는 하얗게 쌓여있었다. 뿌직뿌직 하는 소리만이 검은 하늘을 울릴 뿐이었다. 아래만 보고 걷다보니 어느새 도로위로 내려와 버렸다. 희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인도로 올라갔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XXX 동네로 가주세요..

-알았다.

처음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맞춰 눈을 감고 편안하게 울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덜컹거리려서 그녀는 다시 인상을 썼다. 동네에 다 도착하자 그녀는 아저씨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아저씨 죄송해요...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돈을 놔두고
와서요..

-이봐..학생... 참 어이가 없네.. 얼른 가지고 와!

-잠깐만 기다리세요...

희자는 골목길을 올라갔다.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잘 올라갈 수가 없었다. 마음만 다급해져 넘어지기 일쑤였다. 간신히 집에서 멀지 않은 창고가 있는 곳에 왔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은 가슴을 치며 가쁜 숨을 달라고 있었다.

힘이 다 빠져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녀의 집문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흑시나 하는 마음에 희자는 달려갔다. 발목까지 쌓인 눈에 파묻혀 있는 가녀린 몸... 자신의 아버지였다. 희자는 눈을 부릅뜨고 소금절인 배추김치처럼 쓰러져있는 아버를 일으켜 세웠다. 손으로 목을 받쳤지만 부스스한 머릿결에 쌓인 눈과 함께 머리는 뒤로 쳐져버렸다. 희자는 뺨을 때리며 눈감아버린 아버를 애타게 쳐다보았다.

-아빠.. 일어나 봐.. 아빠! 일어나란 말이야... 왜 추워죽겠는데 밖에 나와서 날 기다리냐구...

싸가지 없는 딸 기다려서 뭐 한다고... 아빠 취급도 안 해주는 딸을... 흐흐..일어나란 말이야!

희자는 몸을 흔들며 자신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희자는 헤어날줄을 몰랐다. 이대로 아빠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희자의 머릿속에선 하염없는 외로움을 노 젓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희자의 검은 눈동자에 다시 아빠가 비추었다. 희자는 아빠의 왜소한 몸을 안고 철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할머니!할머니! 아빠가 쓰러졌어.. 일어나 봐..

-뭐라 고야? 아빠가? 아이고.. 말세다.. 말세여

-할머닌 뭐했어? 아빠가 밖에서 쓰러져있는 줄도 모르고..

-나도 잠들어서 그랬어야.. 오메... 이를 어쩐 다냐...

-어찌긴 어째... 몸부터 녹이고 병원에 가야지...

희자는 아빠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불을 꺼냈다.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꺼운 솜이불에 얇은 이불을 하나 더 깔고 아빠를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하나와 두꺼운 잠바 2개를 들고 왔다. 이불을 덮히고 잠바 두 개로 덮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까맣게 타버린 주전자에 물을 담아 끓였다. 그리고 발걸음 재촉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빠.. 이거 꿀물이야.. 얼른 먹어봐...

고개를 들쳐 올리고 희자는 억지로 먹이려 했다. 하지만 아빠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희자는 방으로 들어가 약간의 돈을 꺼낸 후에 아빠를 업고서 나갔다.

-맞다.. 택시가 아직 있겠지...

희자는 아빠를 업고 조심스럽게 뛰었다. 택시가 보이자 소리를 지르며 아저씨에게 병원으로가자고 했다. 택시기사는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타는 희자의 말대로 병원으로 향했다.

-아저씨,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어? 돈 안내고 갔던 학생이잖아?

-병원 가서 돈은 드릴 테니까 빨리 가주세요. 아빠가 죽게 생겼단 말이 예요.

-급하기도 하네 학생...

희자 아빠의 몸은 얼음땀이 같이 차가웠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허리와 굽혀지지 않은 팔다리 파랗게 말라붙은 입술.. 그것이 희자를 더욱 애태우게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로 향했다. 희자는 의사에게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아빠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은 희자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빠가 술을 먹고 밖에서 쓰러져서 얼었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의사는 조그만 전등으로 눈을 비춰보고 온도를 재고 맥박을 잰다. 알아들을 수 없는 약품이름을 대가며 주사를 놔다. 두어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잠깐 졸고 있는 희자에게로 다가왔다.

-김중지씨 자녀 되시죠?

-아.. 예.. 어떻게 됐죠?

-큰일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셨더라도.. 밖에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맥박이 돌아오셨습니다. 조금만 치료하고 곧 퇴원하셔도 될 겁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으니까 가보세요.

희자는 응급실 안을 쿵광거리며 뛰어갔다. 침대에 널겔을 맞고 누워있는 아빠의 곁으로 달려갔다.

-아빠... 괜찮아? 말 좀 해봐...

-으음...

-아빠... 아빠?

-희... 희자야...

-그래... 나 희자야... 이젠 괜찮아?

-언제 왔냐? 기다렸는디...

-왜 그랬어? 나 안 왔음 어쩔라구 그랬어? 다신 그러지 마! 알았어?

-그래도 걱정이 된디... 쿨럭쿨럭...

-아빠... 그만 자둬... 그리고 나 다시는 아빠 안 보러 올 거니까 혼자서 와... 속만 썩히고 이게 뭐야?

-아직도 여전 하구만...

다시 눈을 감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희자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침대 시트를 붙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 없는 서러움이었다. 희자는 그 동안의 서러움과 증오심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구멍까지 넘쳐 흘러 오는 애절한 소리를 담아냈다.

-아버지...



물망초

부산 가야고교 3학년 6반

김성미

... ..
 ... 보입니까... ...?
 당신의.....
 “칼을 놓아라”
 웅성거림...
 ... 머리까지 울리는 ... 커다란.. 북소리들...
 -----둥 둥 둥.. 둥... 둥.. ... 둥... 둥... 둥... -----
날카로운... 칼날..이 휘어드는 소리.....
 “...내가 직접 죽일 것이야”
전생...이... ..?
 “나으리 소녀를 잡아 보시옵소서”
 붉은 소맷자락이 하늘하늘 향해 내던져 진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여인의 모습이 영락없는 화룻정의 기생이다.
 “이런- 이런- 과연 천하의 명..기구나.. 내 오늘 너와 함께 지내려 하니 어찌 보고 있을수 있단 말이더냐 그래 내 너를 잡아 오늘 함께 밤을 지새울 것이야”
 “하야.. 하.. 나으리.. 소녀 힘드웁니다 빨리 와서 잡아주세요”
 간들어 지는 목소리... 이곳 비루정의 기녀...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잘 팔려 나가는 기녀 赤花였다.
 하얀 눈발..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한 눈위에 그녀가 누워 있다.

하늘을 향해 날아 오르던 붉은 소맷자락이 맥없이 널부러져 있었고 하얀 눈만큼이나 투명한 얼굴 위 붉디붉은 입술사이로 뽀얀 입김이 서렸다.

이대인이 눈 위에 누워있는 적화를 바라보았다. 기녀로만 있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천함 속에 기품이 담겨있는..

“나오리..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옵니까. 소녀.. 애가 타서 죽사옵니다. 빨리 안아 주시어요”

“그래. 대관절 지금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더냐. 너는 기생이고 내 너를 안아주는 남정네일 뿐인데..”

부러질듯이 가녀린 손목이 이대인의 두꺼운 목을 감싸안았다 손안 가득히 느껴지는 흥분한 남정네의 뜨거운 체온..

그래... 내... 기생일..뿐 이였지.... 한낱 기생... 말이야...

나긋하게 눈꼬리가 휘어지고 더욱 간드러지게 소리를 내고... 유혹이다..

“하..아 흐음.. 쿡.. 너무 자극주지 마시어요. 소녀 어지럽사옵니다. 하.. 훗..”

몸 파는 기생일... 뿐이다.

나는... 나는... 기생일 뿐이야...

대인에게 끌려 돈에게 끌려 손님방안으로 오게 되었다. 어두운 방안 가득 가쁜 숨소리가 울려 퍼지고 문밖의 소란스런 소리와 섞여 대인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문밖에서 나긋나긋 거리며 살살 쪼개는 기생들의 소리가 들린다.

“태원님 아니세요?.. 어머니 여긴 웬일로?”

“하 오늘은 적화나 만나 볼까 해서”

“....어머.. 너무해요... 저희들도 태원님을 얼마나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지금 적화.. 손님방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랑 놀아요.”
태원의 눈이... 나직히.. 깔린다..
“...쿡쿡.. 저 여기 있사옵니다...”
손님방에서 허리를 틀어내며 높은 비음으로 적화가 태원에게 외친다..
“여기 있사와요 .. 쿡..쿡.. 자신있으시면. 들어오시라지요... 제 얼굴이 ... 그리 보고 싶으시옵니까?”
“....”
천한 기생 주제에..
..
나라에서.. 서열로 두번째로.. 높은.. 태원에게 던지는.. 저따위 말이라니.. ..
.. 농락인가...
“.. ... 쿡..쿡.. 하.응.. ..간지러워요.. ..”
아직도...그의 손은 적화의 가슴팍과 허벅지를 오가고 있었다...
그대로... 들어오라고 밖으로 외치는...적화의 음성은 아랑곳 하지 않는듯 했다...
..이미 적화에게 빠져 있었다...
----- 드르.. 륵.. .. -----
미닫이 문이.. . 열리고..
반...나신으로.. .어깨를 드러낸채.. ..하늘거리는.. 옷으로.. .아슬아슬하게.. . 가린 .적화가.. ..
태원을 바라본다...
“...훗... 오셨네.. .?”
흘러 내렸던 옷자락을 단정히 여미며 반쯤 누웠던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
“죄송하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지내고

싫어요..”

“뭘.. 뭣이!”

이대인의 두꺼운 손이 적화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친다.

“아... 아으”

“이.. 이.. 미천한 것이.. .감히 . . 감히 어디라고. !!”

뺨을 감싸전채. 그대로 흐느끼는 적화.. 이내 눈꼬리를 휘어뜨리며 웃음을 짓는다.

“죄송합니다 손님.. .내일 다시 오세요”

“...”

“훗. ..내일은 만족 할만한 잠자리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이...이년이 그래도!”

다시 한번 내리치려는 이대인의 손목을 태원이 가볍게 움켜 쥐었다.

“이..대인.. 이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는 않군 내가 온지도 모르고 있었나”

“태..태원님...!”

“돌아가라..”

이대인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은채 차가운 어조로 말하는 태원을 바라보며 재빨리 옷을 챙겨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나간다.

그가 방에서 멀어지자 태원은 적화에게 고개를 돌렸다.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습은 여느 남정네의 가슴을 떨리게 할 만큼 매혹적이었지만 태원에게는 그리 큰 감흥을 안겨주지 않았다.

벌써 옷매무새를 바르게 한 적화가 무릎을 바로 세워 태원앞에 앉았다.

“훗. 그래 요즘 청과는 어떻게 되시나이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는 술상. 그옆에 앉아있는 적화와 태원. .. 천천히 술잔을 들이키며 여유있게 묻는다.

“흐음. . 기성이 국정을 논하는 구나”

태원은 자신의 잔에도 술을 따르며 적화에게 묻는다.

“기생이라고 .. 국정 감사를 논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의 실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법. ...”

적화의 고개가 태원을 향한다 술에 취한 듯 약간은 풀어져 있는 눈동자..

휘어지는 눈꼬리가 어느 여인네 못지않은 아름다움이다.

“더구나..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소문 때문이옵니까..”

더 이상 유혹하는 눈빛이 아니다

태원이 그런 적화를 바라보며 힐끗 웃으며 술을 들이킨다.

“저는 또 그렇게나.. 저를 찾으셨다기에. 만나자 마자 안아주실줄 알았습니다.. 쿡..”

주사..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아니면..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 태원의 눈빛에 하는 말일 것이겠지..

“기생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구나”

태원은 약간 화가 난 듯 술잔을 내려 놓으며 말한다.

“훗. .벌어진 입이니 떠벌려야 제 맛이 아니겠습니까. .입벌리는 것은.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라.. ...”

“...”

낮뜨거운 말이다... .그래..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적화는 기생일 뿐이다.

천하다.. 천한....

“후.. 후.. 술은 그만 드시고 소녀를 안아주실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천천히 두팔을 뻗어 태원의 목을 감싸고 나긋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인다.

이미 적화의 그런 행동에 태원의 몸이 달아오른다 온몸이 전율한다..

적화는. 인간이 아니다.“하. 애가 닳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상대로 보내기는 적화의 국정을 논하는 모습에 이미 태원은 놀란 터였다.

적화는. 기생으로만 있기에는 아까운 재목이다.

가녀린 손끝이 태원의 가슴팍으로 천천히 파고 들어간다.

적화의 손끝이 가만가만 태원의 옷안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더 착 착 감기듯 몸을 감아온, 그녀의 몸놀림에 더더욱 달아오르는 몸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하.. . 그만 하여라”

적화의 몸을 떼어놓으며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는.. .태원.

그런 그의 모습을 약간 당황한듯.. 한동안 바라보던 적화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입꼬리가 찬찬히 올라간다.

“과연.. .천하의 이재상이십니다 저의 유혹을 마다하시다니..”

애초에 장난 삼아 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웃음을 지으며 술을 마시운다.

그렇게. 한동안 술만 마셨다 아무말도 없이.. 적화도. .태원도...

“적화야.. .한동안의 침묵을 깨듯 태원이 친근하게 적화를 불렀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자 - ”

궁궐요..-? .. 궁궐이라 하셨습니까... .

적화는 고개를 돌리며 웃는다.. . 그냥. 웃어버린다.

“왜 웃는거지. ?”

“....훗....그런 말씀.. 하신분이.... 어디 태원님 뿐이더이까..... 건넌 마을 최씨도... 윗마을 김진사도...

궁궐로 절 데려가겠다 하더이다... 쿡... 이놈저놈... 궁궐로 데리고가 땡땡 거리며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어디 태원님 뿐이더이까...”

다들.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렇게 다들 믿게 하곤 하지요 어디. 태원님 뿐이더이까..

민게 하지 마시어요..상처받기 전에..그런말 하지 마시어요.
“그런말. 하지 ..마시어요..”

완전히 술에 취한 듯 꽃잎이 내리듯 그대로 쓰러져 흐트러지듯 쓰러지는 적화...

“후.. . 어쩌면...”

다들.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렇게 다들 민게 하곤 하지요
어디. 태원님 뿐이더이까..

민게하지 마시어요..상처받기 전에..

붉은 상의를 그대로 입고 침대위에 흐트러져 자고 있던 적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눈이 부시게 밝은 태양이 이미 중천에 떠있는걸로 보아선 아주 오래동안 잠을 청한 것 같았다

“태원...님은. . 언제 가셨지”

어젯밤의 느닷없는 그의 제의 .. 하지만 이미 이 몸은 한 낮 기생일 뿐인데 궁궐로 가도 천한대접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이곳에 남아 평생 남아의 욕정을 풀어줘야 한대도 .. 이미 내 집인 이곳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 올라오는 헛된 욕심.. 궁궐로 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내속의 이기심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기생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지..

“적화.. 거기 있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그냥 가겠다만....”

“아니옵니다.. 소녀 일어났사옵니다”

빠르게 침실에서 빠져나온 적화가 앞에 나 섰다 막 침상에서 일어나 많이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기생의 것이라 볼수 없는 기

품이 흐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옳니까. .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 하. .이른 아침이라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서로 지고 있구나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지.. 어제 그렇게 술을 마셨잖으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적화의 얼굴이 화악 달아올랐다.

내 아까 일어나 태양을 바라봤거늘 왜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인가... 태원의 말처럼 어제 마셨던 술이 아직도 깨지 못한 모양이었다.

“음. .그런 말씀은 그만 두시고. .무슨 하실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소녀의 처소를 찾아주시었습니까 훗. .벌써.. 잠자리에 드실 시간은 아니신 듯 한데..”

“모르는척 하지 말아라..어제..말했을터인데..나와 함께. 궁으로..”

“아니되었습니다..!”

태원의 말을 가로막으며 적화가 소리쳤다.

감히 태상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이라니. . .

하지만 이미 적화에게는 그런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거절하지 않으면 난 태원의 제의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럼 뒷일이 힘들어 진다..

지금 거절해야해. 지금...

“저같이. 미천한 기생이 감히 궁궐에 들어가 국정을 논할수 있겠습니까.. 호의는 감사하운데 거절하겠사옵니다 가끔 소녀가 그리워지시면 비루정으로 오셔서 밤새도록 국정이 아닌 뜨거운 밀담을 나누심이 어떠십니까 후후..”

“이...이. 런... .무례하다..”

“한 낮 기생의 입에서 밤도 아닌 낮에 무슨 말이 나오시길 바라는 것이옵니까? 태원님도 사내가 아니옵니까 사내가 기생집을 찾는다는 것은 욕정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옵니까 아무리.. ..”

짜악..-----

태원의 매서운 손끝이 적화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린 눈 위로 흐트러지듯 쓰러진 적화의 몸 위로 태원의 그림자가 드리워 지고 또 다시 한번 아픈 상처를 목으로 넘겨야만 한다.

“한번만 더 그따위로 지껄었다가는 네년의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기생주체에 못하는 말이없구나 내 오늘은 너그러이 봐준다만 다시는 네년을 찾지 않을 것이야 !!”

씨늘하게 스쳐가는 태원의 뒷모습을 끝으로 적화는 눈을 감아 버렸다.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되느니라. 아무것도.. 그것이 무엇이 되더라도 믿어서는 안되느니라

...나 자신조차.. 적이 될 수 있어.

기생의 몸으로.. 태어나 이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다들 하룻밤의 상대였을뿐. 그들을 믿어서는 아니되..그도 결국 떠나고 말았으니..

“그립사웁니다.. 그리워요... 내 오랜”

“비인아(悲漣) 오늘은 나랑 저 산에 올라 가보자”

“네-? 정말..요..하지만 너무 ..높은걸요. 저곳에 올라갔다가는 해가 지고 말거야.. 해지기 전에는 비루정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걸요..”

작은 소녀의 몸이 작게 들썩인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놀지 못하는 가슴아픈 어린시절-

“내가... 내가.. 커서... 널 꼭 그곳에서 빼낼꺼야.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기다려..” “도. 도련님..”

가늘게 떨리는 비인의 어깨를 꼭 안아 주며 힘주어 말하는 작은 사내아이 - 저 밑 동네에 사는 천대감의 막내아들 천강(天剛) 이었다 기생과 대감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큰 신분차이는 작은 아이들조차 느낄수 있을 정도로 가슴 아픈 것이었다.

천강과 만나고 오는 날에는 비인은 언제나 넓은 마당에 엎드려 매를 맞아야만 했다. 그래도..너무.. .너무나... 좋았다..

“도련님....강이 도련님..-”

소녀가 보이시옵니까.. . 옛날의 약속은 다 저버리시고 무정히 떠나 버리신 도련님 눈에 소녀가 보입니까..으흠.. 난 . 이렇게.. 오늘도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실 것을 알지만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도련님을 기다리옵니다..이렇게.. .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는 보잘 것 없는 기생의 모습으로 귀하신 도련님을 기다립니다.

“떠나지..마시어요.. .제발 . 떠나지만 마시어요.-”

그 뒤로는 버려버린 내 이름. .비인.. . 도련님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 천하디 천한 내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도 ...알려 하지도 않는...

“우.. . .우. 흠.. . 흐.. . 거.. .”

비야..내려라...비야 내려 내 마음도 씻어 내려 가버려라... .

더러운 내 몸 위로 가득 쏟아져 내 눈도 손끝도 모조리 씻어 내려가 버려라...도련님을 향한

내 마음까지도... 모두.. 모조리...

“늦었구나 -”

기품있게 돌아보며 태원을 보며 말을 꺼내는 이 사람...

“죄송합니다 폐하”

태원의 외사촌이자 일국의 황제인 이한황제였다.

“무슨 일이길래 이토록 늦은 시간에 다니는 거냐”

“기...생집에 다녀 왔습니다”

“하.. 기..생이라... .”

청천 벽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궁에서는 금지시 되고 있는

기생 출입을..

곧기만 하던 태원이.. 천하의 이재상이.. ..

“여색을.. 즐기러 갔단 말이더냐”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진.... ..”

“왜 대답을 못한단 말이더냐 !! . 궁에서는 여색을 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늘”

어찌 나를 이리도 실망시킨단 말이더냐.. .

‘폐하-여색을 즐기지는 않았사옵니다 단지.. 단지..’

“단지 - ?”

이한이 끝을 흐리는 태원의 말에 미간을 좁히며 재촉하여 묻는다
태원이 기생집을 넘나드는 것은 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일터...

“저. 폐하 주재님은 말이오나..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내 오늘은 용서를 해줄 터이니 다음날부터는 그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한층 누그러진 이한의 말에 안심을 하며 태원이 자신의 처소로 물러가고 이한은 홀로 누각에 남아 이미 저물어 어두워진 궁을 둘러본다.

어두운 곳에서도 하얀 매화는 자신의 몸을 내보이며 바람에 흔들리고 달빛마저 고요히 누각을 비치우고 있었다.

보고. . 싶... 구나... .

한참 따뜻한 아비의 품에서 재간을 피우며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아버지를 잃은 그였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체 가시기도 전에 어린나이에 보위에 올라야만 했었다. 어린 그에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것이었다. 또한 관료들의 행패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시선들... 그 시선뒤에 감춰진 음흉한 속내는 정말 그를 궁지로

내몰았었다. 그때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거의 옆에서 삶의 희망을 준 사람. 때론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진실된 벗(友)으로써, 때론 따끔한 충고로 자신의 잘못됨을 지적하여 준 충신으로써 그의 옆을 지켜주었다. 그의 순수함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그는 사모하였다. 그렇게 이한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는 그냥 충신 이상인 자신의 일부였다.

“여봐라... 천대협을 들라해라 지금 당장 ..”

짜아진듯한 날렵한 턱선 밑으로 길게 흩어져 있는 검은머리가 바람에 날리우고 황제라는 지위에 걸맞는 날카로운 눈매는 한층 누그러져 있었다.

“폐하-이 늦은 밤중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미 많이 길어 허리까지 내려오는 붉은 머리가 하얀 머리끈에 묶여 있었지만 자다 일어난 듯 여기 저기 빠져 나와 있었다.

“달도 밝고 마음도 싱숭생숭해 천대협과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에 불렀는데 하하 .. 너무 늦은 것 같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라 천강을 보자마자 이한은 웃으며 맞이했다 하지만 황제와 자신은 근본부터 다른지라 함부로 대할 수 없던 천강은 씩씩한 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늦다니요 폐하가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그렇게 말하다니 섭섭한데-그래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아닌가 아무도 없는 이런곳에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질책할 사람은 없네”

“그렇게 한번 두번 범했다가는 언젠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호의는 감사하오나 소인은 거절해야 겠사옵니다”

이한은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며 고개를 숙이는 천강을 보고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우리는 신분으로 얽혀 있는 것인지라... 되돌리려 해도 언제
나 그 자리일뿐...

“그래 내 천대협외 고집을 꺾을 수가 없군 모든건 다 잊고 이 좋은
밤에 같이 목에 술이나 축이지 않겠나?”

“폐하께서 좋다하시는데 소인이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술상을 마련할 터이니 저의 침소로 가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지..자..어서 가도록 하자 오늘은 한껏 취해야 할 것 같은 밤이
야 그렇지 않나 천?”

“네..그렇지요 달빛이 참 아름다운 밤이옵니다”

그렇게 이한과 천강은 달빛에 취한 듯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침소
로 걸어 갔다. 이한이 술잔에 술을 따르며 멍한 눈으로 천강을 응시
했다 오늘따라 붉은 그의 머리가 더욱 신비한 듯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보았다.

“천강-어찌 너의 머리는 붉은 색이란 말이지-?오늘따라 더욱더
아름답기만 하구나”

어찌 너는 이렇게 아름답기만 하단 말이냐...계집도 아닌 남아가 어
찌 이렇게도 아름다울수 있단 말이더냐...

“폐하 취하신 것 같습니다...이만 처소로 드시는 것이 어떠실는
지...”

“아니야...취하지 않았어...이 나라의 황제 이한은 이정도에 취하
지 않아...”

애써 위엄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 하지만 이미 풀려버린 이한을
어떻게 해야하나, 곤란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나에 대한 집착
만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한 아름다우신 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황제폐하... 왜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건
지...

이미...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폐하..일어 나셔야 지요 이곳에 누워 계시면 안되옵니다 폐하 -..”
아무리 흔들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이한은 무슨 꿈을 꾸는 건지 잔뜩 찌푸린 표정이였다.

깨우는 것을 포기한 천강은 자신의 침소에 이한을 눕히기 위해 그를 번쩍 들었을 때였다.

“나는 기생이 싫다...너의 마음을 빼앗아간 기생이 싫어 기생 따위는...”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버렸다.

기억하고 계셨단 말인가..내 어렸을 때 투정으로 말한 나의 비인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인가..

그래서 이 궁에는 그렇게도...여색이 금지 되었던 말인가..

왜..그렇게도..나에게 관심을 가지 신단 말인가. . 다 부질없는 일인데도....

태원은 한동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적화의 여리던 뺨을 자신의 손으로 내리쳤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어찌..사랑하는 사람의 뺨을 그렇게도 무심히 때릴수 있었던 말인가.. ..

“아.. 아...적화야 .. 내 어찌 너를 사랑하게 되었던 말이나”

이루어 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야 말았단 말이더냐..답답하구나.. 가슴이 답답해!!

너를.. 너를. 내가 어찌해야 된단 말이나..이를 어찌 해야 되..

다시는..다시는..그곳에 가지 말라는 황제 폐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 어찌 너를 안보고 살수 있다 말이더냐..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도 시리구나.

그 날밤 시린 눈 위에 오래 누워 있었던 탓에 심한 감기에 들어 몇 일째 침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말만 침실이지 손님방에서 이곳

으로 옮겨왔을 뿐 매일 밤 색정에 눈이 먼 남정네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으.. 음.. 나으리 그만 하시어요.. 적화.. . 하 죽사옵니다...”

도련님 오늘따라 달이 참 밝사옵니다 도련님도 어느 곳에선가 이 달을 보고 계시겠죠.

지금 단 한순간만 이 미친한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주제넘은 부탁이지만..이토록 더럽혀진 제 모습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소녀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응 . 간지러워요”

지금 이렇게 다른 남정네의 품에서 놀아나고 있다지만 적화 ...아니 비인이는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오로지 천강 도련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련님은.. 저를 기억하지도 못할 테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겠지요 제가 있을곳은 이 비루정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떠나야 하겠지요.

“대감 나으리...내일 적화에게 칼놀림이나 한 수 가르쳐 주시렵니까?”

이곳을 떠나 멀리 장강으로 갈것입니다 이제 비루정의 하얀 매화를 다시 볼 수 없었지만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도련님을 기다릴 수 없었지만 죽어서도 그리워하지 않을겁니다.

내 사랑을 빼앗아간 기생이라는 것을...

“하하...적화야 네 그런 가녀린 손목으로 칼이나 한번 잡아 보겠느냐”

“나으리 걱정하지 말으세요... 적화가 칼을 들지 못하고 떨어트리면 나으리께서 같이 잡아주시면 되지 않사옵니까”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것은 또 황대감을 적화에게로 빠져들게 한다 대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적화의 말노름에 빠져 그저 취미로 배워 두었던 칼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대감 앞에서는 연약한 듯 아무것도 못하는 듯 하지만 날카롭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갈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진다고해도...

“후후...”

적화를 보지 못한지 두달이 흘렀구나 지나가는 구름처럼.. 시간은 어찌 그리도 빨리만 흐르는지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되어 버렸구나..

“태원나으리 무슨 고민이 있으시옵니까 왜 한숨을 내쉬옵니까”

천대협이 기분 좋게 웃으며 태원을 마주봤다 폐하를 닮아 하얀 얼굴까지 모든 것이 비슷한 태원은 폐하와 같지만 다른 편안함이 있었다.

“천강..오늘로서 벌써 두달이야.. .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지.. ”

“무엇이 두달이란 말씀이옵니까- ”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태원을 바라보는 천강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를것이 분명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눈짓으로 웃음짓는 천강은 누구라도 좋아하며 사랑할만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흐음..그렇게 있지...너무 그렇게 알고 싶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는 말아주면 안되나...?”

이건 천강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라서 말이야...”

“말할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요 .. 전 단지 태원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길래 그랬던것인데..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천강의 붉은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황해 하며 고개를 일으켜 세운 태원은 천강의 순수함에 또 한번 웃고야 말았다.

“대신들을 들라 하시오”

궁 안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

갑자기 터져 버린 때 아닌 전쟁이 그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적들과의 비굴한 타협이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 싸우느냐- 그것도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느냐-

나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폐하-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상태로는 전쟁은 무리일 듯 싶사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폐하- 통촉하여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대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한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전쟁을 일으키기란 늦었다는 것을 지금 대신들의 심정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상대 진영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것이기에 이한은 한사코 전쟁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그대들은 천대협을 그리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의 물음에 그들은 고개를 수그러 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에서 칼부림이라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지인데 어찌 감히 그를 내어 줄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나라의 위기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천강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그 한사람 때문에 수천 군사가 목숨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러하오나 폐하 천대협을 지키시기 위해 수천 군사가 목숨을 잃

어야 한다면 너무 부당한 방책 이온 줄로 아뢰옵니다“

“폐하 -”

이 많은 대신들이 내가 너를 잃기를 원하고 있다 내 원하는 것은 너의 그 능력과 실력이 아닌데.. 단지 너만이 내게 필요할 뿐인데..

“대신들의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는 법 천대협을 한나라에 보내겠다 이르시오”

내. 꼭 너를 찾으러 가리라...

탁.. 탁.. 탁.. 일정한 발자국 소리가 가쁜 호흡과 함께 뒤섞여 들려왔다. 절대 뛰어다닐 수 없다는 궁중의 법도를 지키는 듯 느리지만 급한 걸음으로 누군가가 궁중의 재가를 향해 재빨리 다가왔다.

“폐하 -!! 어찌 그러하실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흥분한 듯한 태원의 커다란 목소리가 궁내 이곳저곳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하지만 숙여진 그의 고개는 도통 들려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찌 고개를 들어 네 얼굴을 마주볼 수 있단 말이나. 내 살을 깎아내는 것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데 내 어찌 그 일을 다시 입밖에 낼 수 있단 말이나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폐하-!! 말씀을 해보십시오 왜요 입이 붙으셨사옵니까

아무리 나라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들 어찌 천대협을 적국으로 보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견 안됩니다. 이견 절대 안돼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가는 태원은 자신이 이 나라의 폐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신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까 중궁전에서 전해들은 천강의 소식에 그야말로 천근의 쇠조각으로 머리를 내리친 듯 충격을 입은 그였다 적국으로 보내다니..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하여도 천강도 이 나라의 소중한 백성중의 한 명일 터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찌 이러하실 수 있다 말이십니까 어찌...천대협은 폐하의 소중한

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사옵니까 그런 그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 버리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준 천대협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

“그럼 어찌란 말이야 !! 아무리 만류해도 이 나라의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적국을 물리칠 수 없단 말이야 알아 들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 막을 수 없었던 말이야 제길..”

“폐.. 폐하.. ” “폐하라고 부리지도 마!! 소중한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 폐하라는 이름으로 불리 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발 가버려!! 날 내버려두란 말이다 !! 옥.. 우흑.. ”

도포자락에 얼굴을 묻으며 오열하는 이한을 바라본 태원은 말없이 재가를 빠져나갔다 처음 보는 이한의 우는 모습은 태원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래.. 폐하도 많이 힘들었을 테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나라를 위해 천강을 보내야만 했던 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 나의 불찰 이였을 테지.. 폐하를 더 힘들게 해버렸어..

나 역시 그런 식으로 적화를 잃어야 했다면 죽고싶은 심정일 테니.. 조금은 쉬게 해드려야 하는 걸까...

“대인.. 어찌 하옵니까

어찌 하여 대인이.. 왜 하필이면.. 옥.. 흑.. ”

간단한 짐들만 챙기며 씩씩한 기분으로 궁을 둘러보는 천강의 모습을 바라보던 충신 한명이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아니야- 난 괜찮아.. 다 큰 사람이 울기는 왜 우나 그만 그치게”

온화한 웃음을 지어보며 그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슬프게만 보여 그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폐하께서도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 하나만 가면 될 일이야 그런 일에 일일이 우애를 찾고 친분을 들먹였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인거지 잘 하신 거야 폐하께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셨을 뿐 그분께 아무 잘못은 없어 그러니 폐하 원망은 하지 말게”

그 말을 끝내고는 뒤돌아 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바람결에 사라질 듯 아슬아슬하게만 보였다 강하신 분- 하지만 지금 그분 또한 많이 슬플 테지..

“후...”

이제 이곳도 마지막이구나 적국에서는 무슨 연유로 나를 데려 가고 하는 것인지-더 이상 태원님의 온화한 웃음도 폐하의 따듯한 배려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러한 그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씩씩한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폐하-천강.. 이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침실에는 조용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어디로 가신걸까 - 뒤돌아 다른 곳을 찾아보려던 그는 미세한 숨소리를 듣게 되었다.

“폐. 하.. -?”

그 였다.

잔뜩 술에 취해 있는 듯 없는 듯 침대 속에 몸을 묻고 괴로운 듯 울음소리를 흘리는 그 사람은 바로 그였다.

“폐하- 우시는 겁니까.. 왜요. 왜 왜..”

천천히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벌써 옷자락이 축축히 젖어 버릴 정도로 쉬지않고 흐르는 눈물은 가슴을 콕콕 쑤셔왔다.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웃으며 보내주세요지요”

“..우 . ㄱ.. 미안하다.. 미안해..”

“폐하..”

한참이나 울었던 것 같다 내가 알더 그랑 많이 달라진 모습에 정말 한참을 울어 댔던 것 같다 마지막 그의 말 까지도..

“내가. 내가 꼭 찾으러 갈꺼야.. 내가 ..그때까지만. 제발 .. 기다려줘 ..”
눈물을 머금으며 하는 말에 참 많이 울었더랬다.

이미 황제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울어대던 모습에서.. 많이 바뀌어 버린 말투에서 그의 슬픔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다시는 이곳의 바람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바람은 다시 불지 않겠지...

영원히.-

“아악- !!”

더러운 바닥 위에 적화가 흐트러져 있다. 어젯밤 짐을싸들고 장강으로 건너가려 했다가 우연히 그모습을 본 비루정의 한 계집년이 이른 것이 화근이라.. 이일을 비루정에서 다 알게 되었고 적화는 가녀린 몸뚱이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매를 맞아나야만 했다.

황대감에게 톱툰 배워둔 무술도 지금 이상황에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네 년이 감히 키워준 은혜도 버리고.. 이.. 이 . 배은망덕한 년”
다시 올라가는 손을 느꼈다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단 말인가.. 이곳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죽고싶었다 차라리 잘된 것일지도 모른다.

“후-내 이번만은 참도록 하지 년 한 나라의 왕의 기생으로 보내질 귀중한 몸이니까 말이야 몸단장 깨끗이 하고 있도록 하렴 비.싼.몸이니까 말이야”

“하.. 한나라의 기생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

하지만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뒤돌아서 가버린다 이게 무슨 운명

이란 말인가 죽음을 무릎쓰면서 까지 벗어나려 했던 기생을 한나라에 가서 또 해야 한다니 그것도 그가 없는 곳에서..

“너무 . . 하십니다 정말 너무 하세. 요..”

지금 내 눈에 흐르는 것이 꼭 눈물만은 아닐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 흔한 꽃눈송이 하나 찾아 볼 수 없고 겨울에 내리는 눈이 더 이상 하얗지도 않다.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 그가 떠난 그날 이후로 일년이 가도 이년이 가도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도 오직 내 눈에는 그만 보일 뿐이다 더 이상 난 살아있지 않다.

“폐하- 무슨 걱정이 있으시옵니까”

“아니오 잠시 피곤하였을 뿐이니 나가보도록 하시오”

반복되는 일상 .. 니가 빠져버린 그 하루들이 미칠 정도로 온몸으로 느껴진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누를 당한 것은 아닌지..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윤대신..앞에 있소?”

“예 폐하-”

“잠시 들어와 보시게나”

마주 앉는 이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몇 년새에 움푹 패여 들어간 볼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 지를 말해 주었다.

한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한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가 더 그리웠을 사람..

하지만 결국은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했던 그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할 줄이야 옛날의 용맹했던 나라의 황제폐하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전쟁을 할 것이야”

“!!!-”

뜻밖의 전쟁선포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음성이 아니라 남자의 음성이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처절한 남자의 음성이었다.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이한은 계속 어루만지고 있던 목걸이를 슬쩍 들어 목에 걸었다. 작은 보석들이 빼곡이 박힌 세심하게 세공 된 듯한 목걸이는 적화를 다시 만나면 주기 위해 어릴 적 강이가 직접 만들어 늘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언제나 그목걸이를 보며 그리움에 눈물짓던 그를 보던 이한은 그에게 슬픔을 주는 목걸이와 그추억까지도 모두 가지고 싶었다.

한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없어지자마자 찾는다고 온 궁을 다 뒤지고 다니던 그를 보며 죄책감에 꺼내들지 못하고 상자 안에만 넣어 두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날 지켜줄 것이야”

어지럽게 돌아가는 붉은 천의 춤사위 앞에 독고무의 입이 좀처럼 닫혀지질 않는다.

상대를 교란하듯이 유혹하듯이 천천히 내뿜어 지면서도 빨리 돌아가는 그녀의 춤은 도저히 누군가가 따라갈래야 갈수가 없는 천하의 명기였던 것이다.

“하하하..그래 그래 내 언제 보아도 너의 그 춤사위는 짐을 미치게 만드는 구나.

명기рода.. 천하제일의 명기일것이야”

“소녀 부끄럽사옵니다 미천한 것을 보고...”

적화의 고개가 살포시 떨구어 졌다.

이곳으로 오게 된지도 언 3년 그동안 이곳에서 하루종일 춤만 추고 말상대만 해주었을 뿐이다 이 나라의 황제는 포악하지도 않았으며 매우 어질고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였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서 인생을 산다는 느낌을 받았을 만큼 이곳은 참 따뜻하고 정넌

치는 곳이였다.

“적화야- 이리 와 보거라”

독고무가 천천히 손짓했다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띤 채 시선은 적화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적화가 가슴에 안기어 오자 그제서야 그녀를 쳐다보며 웃음 지었다

“이곳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사실 너를 고향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이곳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였으니.. 지금이라도 싫다 한다면 내 너를 다시 흑희로 보내주겠노라”

“아니예요 소녀는 이곳도 폐하도 무척이나 마음에 든답니다 소녀를 다시 보내신다면 아마 전.....-”

약간의 울먹임이 섞인 진심 어린말.. 적화는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폐하- 대체 저곳은 어떤 곳이기에 저리도 꼬꼭 잠귀 두시고 혼자만 몰래 들어가 신단 말이어요 소녀는 알면 안 되는 곳인가요?” 적화의 물음에 독고무의 얼굴이 쓸쓸히 옆으로 돌아갔다 멍하게 멈추어 서는 시선 초점은 흐려졌지만 뚜렷히 두 눈으로 문을 비추고 있었다.

금방 눈물이 맺힐 듯한 그의 시선에 적화는 독고무의 웃을 더 짝 움켜 쥐었다 “제가 괜한 것을 물었나봐요 폐하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주무셔야지요.

적화도 오늘은 무척 피곤하답니다”

애교섞인 말투에 촉촉해진 눈망울이 금새 휘어졌다.

“후우..”

몇일 짜인지 몰랐다 한손에 움켜 잡히는 작은 인형을 손에 감싸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다가 다시 하늘을 보고 한숨을 짓고 다시 인형을 보고..

붉은색 비단옷이 입혀져 있는 어여쁜 인형이었다 검은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살며서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습이 영락 기생과 다름없는 작은 인형이었다.

“적화야..”

- 아 그넌은 벌써 오래전에 이곳을 떠습쵸 그 뭘시긴가 한나라가 거기로 간다고 하긴 하던데 시방 그건 왜 물어 보신다요-

“..후. 그래.. 한나라로 갔단 말이더냐”

내 너를 위해 이 인형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너무 늦은 듯 싶구나 내 욕심 때문에 너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오는구나 그래 내 이번 천장을 찾으러 가면서 너까지 데려 오고야 말리라 한나라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모든 곳을 뒤져서라도 너를 찾아 올것이야 태원의 입술이 인형에 살짝 닿았다 떨어졌다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던 문이 스르르 열리며 안의 모습을 들어냈다 온통 붉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방안에 유일한 하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천진 난만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잠이든 그의 모습에 독고무는 살짝 눈을 감았다.

천장..... 그는 적대국인 양나라에서 잡혀 들어온 포로이다. 양나라의 군대의 중심인 천장...

그가 없이는 양나라의 군대는 나약하기 짝이없다... 양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그를 없애야만한다. 아니 그보다 그를 자신의... 한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를 인질로 양의 황제인 이한의 패배인정서약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포로였다. 하물며 이한황제가 그를 무척이나 아낀다는 소식을 이미 접한 터 더욱 더할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적국의 포로인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끔 그의 향기에 나는 알싸한 사랑의 느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한다.

“천.. 강.. .”

낮게 이름을 불러보지만 쉽사리 깨지 않는다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늘도 하루종일 마천이랑 검무 대결을 했겠지. 그래서 저리도 피곤한 거겠지..

“...잘. 자... .”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시끌 시끌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일인가 싶어 문밖을 나서는데 매캐한 화약의 연기가 견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 이게 무슨 .. .”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모르는 듯 서있던 독고무는 천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직도 잠에 빠져있는 그를 들쳐 업고 밖으로 나섰다.

연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목이 다 잘린 충신들의 시신만이 그를 몇 번이고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면 장군이라는 직책을 부여할 것이며 대접도 살아생전에 그의 나라에서 받았던 것 못지 않게 해주겠다고 재차 설득하고 협박하고 모진 고문을 다하였지만 그의 “나는 양나라 의 사람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내가 죽더라도 그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외다..”라는말은 요지부동(搖之不動) 이였다. 또한 적국의 황제인데도... 자신을 그렇게 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고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위로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친선을 유도하게 설득한 그였다.

그의 향기가 느껴졌다

하루종일 이곳에 있었을 그의 향기가 몸 속 깊이 전해져 들어왔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순히 그의 강직하고 따뜻한 마음..순수한 정신과 맑은 성품을 동경하는 것일수도 있다.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듯한 마음에 대한 끝없는 갈망일지도 모른다.
반기고 있을 뿐이었다.

눈앞에 캄캄해졌다 이를 어째야 한단 말인가.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자신에게는 그 혼한 칼 한 자루 없으며 등에는 천강이 업혀있다.

그는 한동안 어째야 할 줄을 몰라 멍하게 서있다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폐하- 폐하 이쪽이옵니다”

마천이었다.

그의 말로는 양나라가 움직였다고 했다 천강 그의 나라 양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지만 나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그를 내어줄수는 없었다 그를 내어주면 자신의 나라에 손실이 올 것은 뻔하며 자신의 양나라를 차지한다는 계획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 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미 그를 사랑하게 된 것 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를 뺏길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적화... 적화는 -?”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자 독고무는 급히 적화를 찾기 시작하였다.

마천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급히 고개만 돌리던 그는 천마 뒤에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보일 듯 말 듯이 한숨을 쉬어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린 그는 적화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처...천강...도련님..-?

정말로 저분이 천강 도련님이시란 말인가.. 아닐 거다. 내가 잘못 본 것일 거야 그분이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니지.. 암.. 그렇고 말고.. 그래도.. 너무 닮았는데..

적화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너무 보고싶어서 마지막인줄 모르는 이 순간에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가 눈을 뜨기 전까지..

“으.. 음. 왜 이렇게 시끄러워.. .”

천천히 눈을 뜬 천장은 독고무의 등에 업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서는 너무 놀라 바닥에 내려오려고 하였다.

“이대로 있도록 해라 . 이곳은 너무 위험한 곳이라 함부로 놓아줄
수 없구나”

황제의 말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의 눈
에 어느 소녀가 보였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소녀.. 가

“비... . 비인... 비인이니...?”

서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
려왔던 지루한 기다림들이 지금 생사를 가르는 이곳에서 흩어져 나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는 사이.. 들인가...”

독고무의 물음에도 그들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안했다기 보다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아직도 서로를 믿을 수 없었기
에 입을 쉽사리 떼지 못했던 것이다.

“저? 다 . 잡아라!!!!!”

“와!!!!!!!!!”

어질듯한 함성소리에, 그곳을 바라보니 수천만의 군사가 밀려 들
어오고 있었다. 낭패였다 이곳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한 것이
였다. 결국, 이렇다할 방편도 써보지 못한채 그들은 잡혀 들어가야
만 했다.

“장군- 포로들을 잡아 들여왔습니다 어떻게..”

“자- 먼저 보도록 하자 이 자가 이 나라의 황제인가?”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독고무를 가르켰다.

이미 수치심으로 붉어진 독고무의 얼굴은 그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리던 그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여전히 풍겨오는 물망초의 알싸한 내음- 적
화였던 것이다.

“너.. 너는 적화가 아니더냐.. 한나라로 갔다더니 왜 궁에 있는 것이냐”

“그.. 그건 ..”

“천강... !!!!!!!!!!!!!!!”

적화의 말을 끊으며 다짜고짜 천강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결국은 나라보다 사랑이 먼저였던 이한.. 천강을 보자마자 포로
들보다는 오직 그에게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폐하- 그동안 심히 편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천강 인사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휘몰아치는 태풍과도 같은 것 하나에서 다시 둘, 둘에
서 셋으로 셋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로, 결국은 無의 상태로...

세상은 돌고돌아 결국은 한점에서 만나는 것..

결국은 그들도 만나야 하는 운명인 것을..

“폐하- 어떻게 처리할까요”

태원이 독고무를 흘끗 보며 물었다.

태원의 옆에는 이한이 있었고 그 앞에는 독고무와 마천이 그리고
그 옆에는 적화가..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한의 옆에 천강이 있
다는 사실 이었다.

“그래 네가 내 곁에서 천강을 뺏아갔다고 했겠지 자그만치 3년이
나 말이야 난 그300년과 같은 시간을 견뎌 오면서 내내 생각했지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어떻게 해야할까..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지
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하지.

그럼 이재상, 먼저 저들을 옥에 가두어 두어라”

“예 폐하”

지하를 내려가 철창 문을 잠글 때까지 태원은 적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많이 놀란 듯한 모습...처음 당해보는 일일 터이니 당연히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태원은 당장이라도 적화를 꺼내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폐하의 명을 어길 수야 없었다. 태원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겼다.

“폐하 저들은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고 아껴주신 분들입니다. 부디 자비를 발휘하시어 저들을 용서 해주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천강의 작은 한숨소리가 방안 곳곳을 돌아다녔다.

비록 적국의 황제이며 재상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위로 해 주며 외로움을 해결해준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고..

비인이.. 그 여린 것이 험악한 감옥살이를 어떻게 견딜수 있을지.. 사실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 바였다.

“그럼.. 저 기생만이라도 풀어주시면 안되단 말이옵니까?”
“기.. 생?”

묘하게 얼굴이 일그러 졌다.
기생이라 하면 독고무의 옆에 있던 그 여시같이 생긴 여자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아이가 기생이라는 사실은 어찌 알게 되었지?”
날카로운 이한의 눈초리가 쏟아져왔다.

그것은 생각지 못한 바였다 너무 오랜시간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이한이 기생을 꺼려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였다.

“그 .. 그건”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

조금은 화가난 듯 이한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 허둥대던 천강은 그냥 사실대로 말하기를 결심하고 고개를 들었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한의 눈을 마주 대하니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그.. 그제.. 그.. 그제.. 휴..

사실 그 아이가 제가 말하던 그 아이입니다 폐하 그래서 알게 되었던 것 뿐입니다”

“뭐.. 야? 그 .. 그 기생이. ?...”

그러면 한나라에 있던 그 시간 동안 그아이와 함께 있었던 말이더냐”
조금은 누그러진 듯 하지만 여전히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비인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오라-

오늘 처음으로 우연히 만난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그렇단 말이지.. 흠..”

방안의 싸늘했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 하였다.

들릴 듯 말 듯 한 천강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한은 골똘히 생각을 빠졌다 그의 표정은 마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듯이 아주 신중해 보여 마른침을 꿀꺽 삼켜야만 했다.

“폐하- 이런곳에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소인의 불찰입니다 조그만 더 국방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 소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마천의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바닥위로 조금씩 번지는

물방울들이 독고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였다.

“아니야.. 운이 없었을 뿐인게지.. 어차피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구나 단지 우리 백성들에게 미안할 뿐이야”
‘흑 폐하-’

“남자가 웬 눈물이 그리 헤프단 말이더냐 자고로 사내란 일생에 딱 세 번을 울어야 하는 것이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그만 눈물을 그치거라”

독고무의 말에 마천은 소매 자락으로 금새 눈물을 훔쳐냈다. 황제폐하는 저리도 담담하신데 내가 울 수는 없었다 일어서야 했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서 그를 빼내야만 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볼 수만은 없었다 그건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다.

‘폐하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시어 백성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아니십니까!

이대로 무너지신다는 것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을힘을 다할 겁니다 저는 죽더라도 폐하만은 살릴 겁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침묵 속의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아직은 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적화는.. 자는건가”

마천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자 더러운 바닥 한 귀퉁이에서 잠들어 있는 적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름답지만 슬퍼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눈물이 떨어질것만 같았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저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어도 자기 나라에서 옥방살이를 하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후”

그의 긴 한숨소리가 마천의 가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너무나도 존경했던 자신의 황제.. 자신의 형.. 같은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황제와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언제나 뿌듯했던 그였다. 그런데 이토록 약한 자신의 우상을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차라리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하고 싶을 만큼 자신에게서 황제의 자리는 컸다.

“폐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셔야 합니다 한나라의 황제는 어느 순간에도 늘 강하셔야 합니다.

벌써 잊은 것입니까?”

“그래.. 그랬지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가슴이 죽도록 아픈 것도 참아내는 것도 이 모든 일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벌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과 내일.. 아니 내일이 다시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일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여전히 이 지저분한 감옥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며 죽음의 공포는 점점 우리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냥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한다.

“우.. 우웅...”

조금씩 들어오는 태양 빛에 적화의 눈이 스스로 떠졌다.

편한 잠자리를 가지지 못했던 터라 온몸이 쭈셔오는 것이 얼굴을 찌푸리게 하였다.

“여기가..?”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조금 떨어져 눈을 감고 있는 독고무를 발견했다 괜히 씩씩해 졌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리도 쉽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부와 명예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저리 홀로 남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천마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듯 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실감이 되었다 자신은 이곳으로 끌려왔고 앞으로 이 곳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천강은 다시 만났다는 것..

사실 이제 죽어도 좋았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그를 다시 만났기에 그가 나를 알아보았기에,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 다시 한번 그를 보고 싶어졌다 억지라 하여도 단 한번만 더 보고 싶었다.

“폐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일어났느냐.. 생각이라 할 것까지 있겠느냐 단지 눈을 감지 않았을 뿐이지 삶과 죽음의 차이도 그것이 아니더냐 아직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본 것뿐인 것을..”

가끔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는 했다 하지만 웬지 오늘은 알 것 같기도 하였다. 괜찮을 것이라 스스로 다짐을 해보아도 온몸을 휘감아 오는 죽음의 공포는 폐하라 하여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일 테니..

“살아있음이 가끔은 무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 그렇지..”

마천은 눈을 떠 두사람을 바라 보았다.

아마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 살아있어도 곧 죽을 목숨이니 살아있음이 무의미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대체... 무엇이길래...

이리도 괴롭힌단 말인가.. 이리도 힘들게 한단 말인가...

“아.. 침인가.”

잘 열리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억지로 잠에서 깬다.

늘 같았던 아침이지만 오늘만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울리지 않았던 새의 지저귀도 햇살의 투명함도 모두 비춰지기 시작했다.

난.. 살아있는 것이다.

“밖에 누구 있느냐”

“예 폐하”

“천대협을 들라 이르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들었을 터였다 그러면 그가 이곳으로 올 것이고 행복해 질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가 있어야만 삶을 느끼고 세상을 느낀다 그 없이는 나도 죽은 것이다.

“폐하 천대협 이옵니다”

“어서 들라 하여라”

하루밤새 두 눈 밑이 음푹 패어 들어간 천강은 보이는 그대로 무척 피곤해 보였다.

윤기 하나 없는 푸석 푸석한 피부가 밤새 그가 잠을 못이루었다는 것쯤은 쉽게 알수 있게 해주었다.

“왜 잠을 자지 않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지금은 그의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았다 비인이 저 차가운 옥바닥에서 주그려 잠을 잘 것을 생각하면 오던 잠도 달아날 터였다.

“이곳에 적응이 되지 않았나 보구나 차차 적응이 될 것이야”

살며시 웃으며 천강을 마주본 이한은 그의 얼굴에서 좋지 못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묘하게 그의 얼굴을 찌푸려 트리고 있었다.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제가 감히 어찌...”

“아니다 할말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여라 내 다 들어줄 것이야”

잠시 망설이던 천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마주하기 힘든 그의 얼굴..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른침을 삼켰다.

“지금 폐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어째서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나라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은 흑흑의 황제로서 맞지 않는 일인줄로 생각됩니다”

이한은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제가 그 나라로 간 것은 다 친우조약을 맺음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 조약을 어기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기생은 우리 흑흑 사람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지금 그녀까지 잡아 들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라니..

“사사로운 감정이라..무얼 말하는 것이지”

잠시의 뜬을 들이던 천강은 다시 마음을 다져 먹은 듯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거지”

“설마 대신들까지 다 찬성한 일이 였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혼자서 중대한 나라의 일을 처리하시다니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셨습니다” 천강의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던 이한은 다시 눈을 빛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건가

혹시 그 포로들을 다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테지..”

천강은 말을 잊지 못하였다 사실 그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신도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어찌 해야 할까.. 대체..

“어서 말을 해 보거라..”

“더 이상.. 드릴 말이.. 없.. 습니다”

이한의 주먹이 탁자를 세계 내리 쳤다 아마 화가 난 것일 테지 지금

천강의 말은 그들을 살려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 그렇게
게도 저들을 위한단 말이지.. 황제에게 대들만큼 그렇게.. 소중한단
말이지..

오늘 .. 모두 죽여 주마..

“밖에 누구 있느냐 이재상을 불러 오거라”

“예 폐하-”

순식간에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해졌다.

갑작스런 처형명령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천강을 괴롭게 만
들었다 “내가.. 내가 말하지만 았았더라도.. 내가.. 후.. 성급했다..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 있었다.

“나와 - ”

얼떨결에 끌려 나가게된 독고무와 적화 그리고 천마는 죽음을 예상
하였다. 사실 죽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던 바였다.

“폐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천마가 무찌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흑희에 있는 군사들이 모두 모였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사
형장을 가득 매우고 있었다.

“아니다 - 내 운명인 것을. 나야말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어 미안
하구나”

“아니옵니다 폐하..”

“적화야 너에게 미안하구나 내 작은 욕심으로 너의 목숨을 잃게 되
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까.. 후세에 보게 된다면 이 죄 값
을 받도록 하겠다” 적화는 말이 없었다.

아마 침묵 속의 부정 일테지.. 어느덧 걸어걸어 사형대 한가운데 오
게 되었다 머리 까지 울리는 커다란 북소리들....

---- 둥 둥 둥.. 둥 ... 둥.. . . . 둥. . . 둥.. 둥-----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옆에서 칼을 휘둘러 대는 망나니의 모습이 아니라 황제 옆에서 금방 눈물이라도 쏟아낼 듯한 천장이었다.

“마지막으로 할말은 없는가- ”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이리도 목에 매어오는 것인지, 삶에 집착을 가지지 않고자 했거늘... 사람이라는 것이 이리도 추악한 것이었거늘..

“할 말이라고 있겠습니까.. 단지 한낱 죽음에 이리도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지요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라 한다면 제가 추악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그거야 어렵지는 않지..”

스르릉.. 망나니의 칼끝이 독고무의 목을 향해 겨누어 지고 그는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천장은 그만 눈물을 터트리려고야 말았다.

자신에게는 늘 붉은 얼굴로 편안하냐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던 사람.. 한 없이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떠나고야 말았다..

천장의 얼굴위로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된 것은 두 번째 마천이 급히 그를 따라 갔을 때부터였다.

“폐하- 제발 . 육.. 제발 그만 하셔야 합니다..흐.. 흑.. 이리 하서는 안됩니다.. ”

애절한 천장의 목소리에도 이한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만 갔다 마지막으로 적화를 बे기 위해 칼끝을 높이 들어올렸을 때였다.

파악- 하며 살갓을 찢는 소리와 함께 적화의 앞에는 태원이 웃음 짓고 있었다.

“태. 태원. !!!!”

너무 놀란 이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하지만 태원은 이미 그의 존재 보다는 적화 그녀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미

소를 지우지 않고 있었다.

“어.. 어째서...태원님이.. 어째서..”

“후.. 몰.랐겠지...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큁...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너를 궁에 데려와..함께 살고 싶었다..

..흐..흐흠..”

더 이상 말을 하기 힘든 듯 태원은 얼굴을 찌푸렸다.

멍하게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한의 눈빛은 더 이상 황제의 것이지 않았다. 자신의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원망.. 으로 미친 듯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그. 그것만...알아주...기...르...절대 날 잊지 마...마..라 르..”

힘없이 태원의 손이 떨어져 내렸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아직도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로 적화의 품에서 씨늘이 식어갔다.

적화는 아직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놀란 듯이 보고 있는 천강의 눈빛까지도 감당해 낼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칼을 내 놓아라.. 내가 직접 죽을 것이야”

서서히 칼을 들어올린 이한의 손끝이 분노로 인해 작게 떨렸다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이 저릴 만큼 무섭게 타오르는 그의 눈에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휘더드는 소리.. 적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
. .
. .
. .

“자..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뜹니다.

하나....둘 셋”

눈을 뜬 그녀앞에 책상 한켠 화병에 담겨있는 물망초가 어렴풋이 보였다. 알싸한 물망초의 향은 그녀를 그리움과 애절함에 눈물짓게 하였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누나-왜 안 일어 나... 왜 우는 건데 응?”

“누가 누가 아프게 했어?...에잇...누나 괴롭히는 사람 다 혼내줄테 니깐... 그만 울고일어나...”

“내가 누나를 지켜 줄꺼야.....”

자신을 흔들어 대는 손길에 조용히 눈을 뜬 비인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았다. 웬지 그와 많이 닮아 있는 듯 했다.

“자-눈물 닦으시고요”

의사가 내밀어 주는 손수건을 받아 설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 내었다.너무나 가슴이 아파 왔다 괜히 이곳으로 왔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맙.. 습니다”

“별 말씀어요.. 어떤가요.. 전생을 보니까 이제 답답한게 좀 사라졌 나요?”

웃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차마 무어라 대답할 자신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답답할 뿐..

“대답을 안하시는거 보니.. 음 제 작전은 실패인가요..”

그가 작게 웃음 지었다 비인은 약간 씩스스한 미소를 띄우며 옆을 돌

아봤다.

아직은 많이 어린 자신의 동생이 신기한 듯 자신을 뚫어 저라 쳐다 보고 있었다.

“글쎄요... 그런데 가슴이 조금 아프기는 하네요..”

그녀 또한 작게 웃으며 넘어갔다.

시계를 본 비인은 나갈 준비를 하였다 잠시 백화점에 들렀다가 그를 만나야 할 터였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을 데리고 나가는 그녀를 보던 의사는 잠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왜..--?”

“이거. 가져 가시라구요.. 며칠 전에 샀는데 마땅히 들곳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쪽이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요.”

그의 손에는 예쁜 인형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누나- 누가 뭐 봤어 응? 정말 전생이 있는거야 응?”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인은 작게 웃음지었다.

“그럼- 강이도 이다음에 크면 볼수 있는 거야 그때는 누나가 같이 와줄게”

“진짜 지이 약속한 거다”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준 비인은 문득 강이의 손에 들려 있는 인형을 바라보았다.

신기할 정도로 자신과 닮은 그 인형은 왠지 슬퍼보였다.

“어때- 전생은 잘 보고 온거야?”

“응. 그랬지..”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보여.. 어디 아퍼?”

걱정을 하며 자신의 이마를 짚어보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아직도 그거 하고 다니는거야?”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며 하나하나를 엮은 듯 세심하게 박힌 보석들이 단아한 빛을내고있었다.

“어?. 이 목걸이.. 그냥..날 지켜주는 것 같아서 늘 가지고 다녀.. 없으면 허전할 정도라서..”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는 그를 보니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며 하나하나를 엮은 듯 세심하게 박힌 보석들이 단아한 빛을내고있었다.

“어?. 이 목걸이.. 그냥..날 지켜주는 것 같아서 늘 가지고 다녀.. 없으면 허전할 정도라서..”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는 그를 보니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난.. 기생이 싫어..” 들리지도 않을 작은소리로 그가 말했다

“어.. 진짜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그녀의 얼굴이 들렸다

그 인형은 슬픈 눈동자를 하고서는 기생 옷을 입고 춤추고 있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슬픔을 떨쳐버리려는 듯한 처연한 몸놀림 같아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쳐다 보았다.

“.....”

“누나, 누나 또 왜 울어? ... 누나야 울지마.. 누나 울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두 울고 싶어지니까....그니깐 울지마.....”

그녀눈에서 실새없이 계속 눈물이 떨어졌다.

이유도 모른다 이 눈물이 왜 떨어지는 것인지.... 왜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흐르는지.....

.

.
.
그의 손길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여기 저기 펼쳐져 있는 프린트들을 정리하며 그의 눈동자는 실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 난 기억. 못하는구나.... 잊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상식들과 용어들로 빼곡이 들어찬 프린트들의 글씨가 점점 흐리게 보이더니 이제는 번져 나가고 있었다.

“뭐 .. 어차피. 예상은 했지만...”
상담실 한켠에 수분을 한껏 머금은 물망초가 더욱 알싸한 향을 풍기고 있었다.

소매로 눈가를 쓱쓱 닦은 뒤 마지막으로 상담실의 불을 껐다.
그곳의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뒤돌아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
.
.
“I wish doesn't forget me.... but.....”

수상현황

초등부

- 대상** 김보라(죽곡초교 4년) | 1명
- 금상** 김선진(담양 고서초교 1년) | 1명
- 은상** 이세란(죽곡초교 6년) | 1명
- 동상** 정우전(장흥초교 4년) | 5명
 - 김푸른(여수 문수초교 2년)
 - 하유진(장흥초교 3년)
 - 송종면(고흥 과역초교 6년)
- 김영옥(신안 흑산초 신흥분교 6년)
- 장려상** 김영미(곡성서초교 5년) | 5명
 - 서리라(장흥초교 2년)
 - 정여민(장흥초교 6년)
 - 김연주(고흥 송산초교 5년)
 - 안수정(고흥 송산초교 5년)

중 · 고등부

- 대상** 이수진(김해중앙여고 3년) | 1명
- 금상** 윤지은(춘천여고 2년) | 1명
- 은상** 김향남(김해 중앙여고 2년) | 1명
- 동상** 박소희(천안 광풍중 3년) | 5명
 - 노현주(김해 중앙여고 2년)
 - 김가나(영광고 2년)
 - 김세희(여수 부영여고 2년)
 - 강지수(서울 풍문여고 3년)
- 장려상** 김혜정(고성고 2년) | 5명
 - 이신무(광주 문흥중 3년)
 - 김유리(광주 동신여고 2년)
 - 문혜원(김해 중앙여고 2년)
 - 이세영(곡성고 2년)
- 입선** 김성미(부산 가야고 3년) | 3명
 - 김영경(서울 광양고 2년)
 - 고옥란(영광고 2년)

2001 제 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글짓기 부문 수상집

2002년 3월 25일 인쇄
2002년 3월 29일 발행

발행인 | 양병하

편집인 | 조준원

발행처 | 곡성문화원

주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 - 4

전화 | 061) 362-0890

디자인 | 위드디자인

• 이 책은 국비 및 지방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